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연구책임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권정현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김해숙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권용준

예다음 어린이집 원장 김선경

익산부송유치원 수석교사 최형숙

연구보조원: 국립군산대학교 학생 박민석

국립군산대학교 학생 이애연

차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4
3. 연구 절차 및 방법	5

II. 문헌 연구

1. 표준보육과정의 개념과 의미	9
2. 제1차~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13
3.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28
4.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전환	29
5. 문헌연구의 결과	32

III. 현장전문가 FGI 실시·분석

1. 연구방법으로서의 FGI	36
2. FGI 참여자	36
3. 자료수집 및 분석	39
4. FGI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41
5. 어린이집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42
6. 유치원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51
7. FGI 분석의 결론	61

IV. 설문조사 실시·분석

- 1. 설문조사 구성 67
- 2.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분석 결과 67
- 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응답 분석 결과 91

V.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및 논의 125
- 2. 연구의 제언 132

참고문헌 135

부록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설문지 139

표 차례

<표 I-1> 연구 과정 및 절차	5
<표 I-2> 연구 방법	6
<표 II-1> 영유아보육법 내용 중 “표준보육과정 관련 주요 조항”	10
<표 II-2> 연도별 주요 추진 계획 및 프로그램 (2018-2022)	12
<표 II-3> 제1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13
<표 II-4> 제1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14
<표 II-5> 제2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16
<표 II-6> 제2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18
<표 II-7> 제3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20
<표 II-8> 제3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22
<표 II-9> 제4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24
<표 II-10>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25
<표 II-11>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비교	29
<표 III-1> FGI 연구참여자 정보	37
<표 III-2> 사전 배부된 FGI 면담 질문	39
<표 III-3> 자료 분석을 위한 주제분석 방법 6단계	40
<표 IV-1> 설문 참여자 성별	68
<표 IV-2> 설문 참여자 연령 분포	68
<표 IV-3> 설문 참여자 직업	69
<표 IV-4> 설문 참여자 학력	69
<표 IV-5> 설문 참여자 전공	70
<표 IV-6> 설문 참여자 거주 지역	70
<표 IV-7> 영유아 자녀 재원 기관의 종류	71

<표 IV-8>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영유아) 연령	71
<표 IV-9>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72
<표 IV-10>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 정도로 충분	72
<표 IV-11>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73
<표 IV-12>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73
<표 IV-13>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74
<표 IV-14>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74
<표 IV-15>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	75
<표 IV-16>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이 필요성	75
<표 IV-17>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중복응답)	76
<표 IV-18>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	76
<표 IV-19> 0~2세 영아교육 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	77
<표 IV-20>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을 둘 부분	78
<표 IV-21>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78
<표 IV-22>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	79
<표 IV-23>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	79
<표 IV-24>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인식	80
<표 IV-25>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	80
<표 IV-26>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	81
<표 IV-27>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	81
<표 IV-2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	82
<표 IV-2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	82
<표 IV-3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	83
<표 IV-31> 보수교육(연수) 기간	83
<표 IV-32>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	84
<표 IV-33>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84
<표 IV-34>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85

<표 IV-35>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85
<표 IV-36>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	86
<표 IV-37>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	86
<표 IV-38> 기관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	87
<표 IV-39>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	87
<표 IV-40>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	88
<표 IV-41>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	88
<표 IV-42> 국가는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자	89
<표 IV-43> 부모가 교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89
<표 IV-44>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	90
<표 IV-45>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성별	91
<표 IV-46>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연령 분포	91
<표 IV-47>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력	92
<표 IV-48> 설문 참여자 전공	92
<표 IV-4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거주 지역	93
<표 IV-5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근무 기관 종류	93
<표 IV-51>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최종 보유 자격	94
<표 IV-52>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경력	94
<표 IV-5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전담 영유아반의 연령	95
<표 IV-54>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96
<표 IV-55>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97
<표 IV-56>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분석	97
<표 IV-57>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98

<표 IV-58>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98
<표 IV-5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정도	99
<표 IV-6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0
<표 IV-61>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1
<표 IV-62>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이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1
<표 IV-63>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2
<표 IV-64>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3
<표 IV-65> 0~2세 영아교육 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	103
<표 IV-66>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을 둘 부분	104
<표 IV-67>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5
<표 IV-68>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6
<표 IV-69>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6
<표 IV-70>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107
<표 IV-7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7
<표 IV-72>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8

<표 IV-73>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108
<표 IV-74>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09
<표 IV-75>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	109
<표 IV-76>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110
<표 IV-77>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0
<표 IV-7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111
<표 IV-7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1
<표 IV-8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2
<표 IV-81> 보수교육(연수) 기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2
<표 IV-82>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3
<표 IV-83>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4
<표 IV-84>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4
<표 IV-85> 만 2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5
<표 IV-86>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5
<표 IV-87>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6
<표 IV-88>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117

<표 IV-89> 기관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7
<표 IV-90>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8
<표 IV-91>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9
<표 IV-92>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19
<표 IV-93>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20
<표 IV-94> 부모가 교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21
<표 IV-95>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122

그림 차례

그림 II-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31
---------------------------------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절차 및 방법

I. 서론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산하 교육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영아(0-2세)는 588,271명이며, 전북의 영아(0-2세)는 17,556명으로 나타나 2.98%의 영아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북도청통계자료, 2024).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심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최근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전반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로, 영아기의 중요성과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영아기는 태어나서 유아기(3세-5세) 이전의 시기로 우리나라에서는 0세부터 2세에 이르는 시기를 의미한다.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은 세계적으로 영아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영아 역시 아동과 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영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Gopnik, 2009). 능동적 영아 시기는 인간이 태어나 발달과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로 인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아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프로이트, 에릭슨, 왓슨, 피아제, 비고츠키, 촘스키 등 인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의 다양한 특성이 영유아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아기는 뇌 발달은 물론 신체, 언어, 사회성, 정서, 인지 발달에 있어 가장 큰 발달과 성장을 이루는 시기로, 학습과 관계의 토대를 형성하면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ittmer & Petersen, 2011). 영아기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토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아기의 중요성과 함께, 영아의 양육과 교육을 온전히 가정에서 수행하던 과거와 다른 현 상황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자녀양육 기능 약화

와 같은 현대사회의 변화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아들이 교육·보육기관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하루 중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이승연, 유주연, 2014). 저출산 현상, 복지 및 무상 보육과 관련된 정책의 과도기적 변화도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의 수를 급증하게 하고 있으며,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문희, 2013).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안심하고 영아를 맡기고, 보살피며,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출산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은 출산에 대해 고민하는 시점에 있는 가정에는 출산을 독려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영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부 관할의 유아 대상의 유아교육과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이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와 보호자, 교사, 교사 양성의 대학체계 등과 연계되면서 매우 민감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임부연, 2023). 영아 대상의 보육에 대한 관점은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영아는 보육의 개념을 적용하고 유아는 교육의 개념을 적용하여 왔다. 이는 보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다름으로 인해 발행해 왔던 이분적 운영방식으로 용어의 사용, 운영 방식, 예산 적용, 교사양성체계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어왔다. 이런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분화된 운영체계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2012년부터(당시 박근혜 정부) 점진적으로 만 3-5세 유아 대상 교육과정을 교육 및 보육기관의 형태와 상관없이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여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실행이 요원해보였지만, 최근 유보통합에 대한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박정옥, 2020). 하지만, 최근에는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유보통합에 대응하고 준비하는 측면의 연구들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박정옥, 2020; 임부연, 2023). 이러한 측면에서 영아 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영아 교육이라는 개념은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화되어 정착되어 있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보통합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용어가 될 것이다.

Lally & Mangione(2006)은 영아 교육은 성인 주도의 학습이 아닌 영아 주도의 학습으로 관계에 초점을 둔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영아 교육은 영아가 주도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신체, 감각, 정서, 인지영역 등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고 발달시켜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영아 교육에 놀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심리학 이론인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부정적인 정서, 갈등, 긴장, 적대감 등을 해소시켜 건전한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최민수, 2012). 이

러한 측면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영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이면서 놀이를 접목한 교육이어야 한다. 영아 교사의 전문적 능력은 영아의 능력, 흥미, 관심에 대해 관찰하고 이해하여 반응하며, 영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Friedman & Soltero, 2006).

영아 교육은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물론 영아를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되어 왔지만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영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이 새로이 개발되고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아 교육과정은 개별 영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영아의 발달, 특성, 상태, 관심, 흥미 등을 관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활동, 환경,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Kovach & Da Ros-Voseles, 2008). 이 시기의 영아들은 매우 기초적인 생활방법과 생활습관 형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놀이와 탐색 뿐만 아니라 낮잠 자고 먹고 기저귀 가는 일상적인 일과도 중요한 교육 및 관계 형성의 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Lee, 2005). 영아 교육과정의 중심에는 영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영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수적이며, 영아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발달과 성장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이승연, 유주연, 2014). 영아 교육에서 영아에 대한 관찰은 영아 교육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기본 토대가 되는 과정으로, 영아의 개인차나 발달에 기초한 지원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Gandini & Edwards, 2001). 이러한 관찰의 영역은 건강, 신체, 기본 생활 습관, 언어와 의사소통, 정서, 인지, 사회성 등 그 영역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교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교사는 영아가 행동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영아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어 영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Wittmer & Petersen, 2010).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영아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수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영아 교육 운영의 다양한 사례가 개발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제시와 함께, 개발된 교육과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정비, 교구 확보, 교원 연수, 보조 인력 지원 등에 대한 교육정책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아 교육이 도입되는 시점에서 영아를 지도하는 교사의 역량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영아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아와 보호자, 관련 기관 종사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 교육과 관련하여, 영아 대상의 교육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현장 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FGI(초점집단면담)를 진행하며,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영아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망하고자 한다. 영아 교육의 목적과 목표, 영아 교육의 중점사항, 영아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영아 교육을 위한 제도와 정

책의 요구, 영아 교육을 위한 교육 현장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수립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영아 대상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영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영유아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담(FGI) 실시를 통해 영아 교육과정 및 영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다.

셋째,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 면담 결과를 토대로 설문자료를 구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학부모(보호자), 관련 기관 종사자,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넷째, 문헌연구, 초점집단면담(FGI),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결론을 도출한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 방법을 선정하고, 주어진 연구 기간(2024.10.~2024.12.)에 연구를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계획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1> 연구 과정 및 절차

일련 번호	주요연구내용	추진 일정 (월)			비고
		10	11	12	
1	연구 팀 구성 및 계약 체결	○			
2	연구과정, 연구방법, 연구절차 설정	○			
3	연구배경, 필요성 도출, 문헌연구 실시	○	○		연구과제1
4	현장 전문가 FGI 준비, 실시 및 분석		○		연구과제2
5	설문조사 구성 및 설문 실시·분석		○	○	연구과제3
6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토			○	
7	전문가 자문 및 검토			○	
8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			○	
9	연구결과 정산보고			○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각 연구 방법의 특성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연구 방법

구분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또는 연구 참여자	세부 내용
1	문헌 연구	선행연구 표준보육과정 누리교육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이전에 존재하는 보육과정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표준보육과정의 개념, 역사적 배경, 의미 등 ■ 1차~4차 개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변화 ■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의 차이 분석 ■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및 필요성
2	FGI (초점집단면담)	현장 전문가 총 20명 어린이집 교사 10명 유치원 교사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으로써의 FGI와 연구 참여자 현황 ■ FGI를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FGI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 어린이집 교사 대상 FGI 실시 및 분석 ■ 유치원 교사 대상 FGI 실시 및 분석 ■ FGI 분석 결론 정리
3	설문 조사	관련 기관 종사자 영아 보호자(부모) 전북도민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검토·수정 ■ 설문조사 실시 및 협조 요청 ■ 설문조사 결과 및 데이터 정리·변환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II. 문헌 연구

1. 표준보육과정의 개념 및 의미
2. 1차~4차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3.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4.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전환
5. 문헌 연구 결과

II. 문헌 연구

본 연구의 한 영역으로서 문헌 연구에서는 영아 교육과정 및 영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개념과 의미, 1차부터 4차까지 개정되고 운영되어 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는 영아 표준보육과정이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1. 표준보육과정의 개념과 의미

가. 표준보육과정 개정의 역사적 배경 및 필요성

- 표준보육과정은 시대적 요구와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국에서 표준보육과정은 1991년 첫 도입 이후 1998년, 2007년, 그리고 2019년에 걸쳐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보건복지부, 1991; 보건복지부, 1998;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부, 2019).
- 첫 번째 개정의 배경은 1980년대 경제 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이 국가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다. 이에 따라 1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기본 생활습관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초적 보육 체계를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1991). 이후 1998년 IMF 경제 위기 이후,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보육 수요가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2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보건복지부, 1998). 이 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창의성 발달과 사회성 함양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유아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2000년대에 들어와 아동 권리와 발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육환경 개선과 교육 품질 제고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에 개정된 3차 표준보육과정은 유아의 자율성 증진과 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특히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을 강조하여 가정과 연계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유아의 탐구 능력과 자발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최근 4차 표준보육과정(2019년)은 학습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의 다양성과 공감 능력을 기르며,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및 협력 학습을 지원하였다(교육부, 2019). 또한 발달 수준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 놀이 중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사 연수와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 표준보육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

- 표준보육과정은 개정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 및 내용의 발전을 보여왔다. 1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주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생활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2차 과정에서는 아동 발달을 고려한 전인적 발달과 창의성 개발을 강조하였다. 3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유아의 자율성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4차 표준보육과정은 놀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창의적 사고력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1; 보건복지부, 1998; 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부, 2019).
- 표준교육과정은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하여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을 목적으로 한다.

<표 II-1> 영유아보육법 내용 중 “표준보육과정 관련 주요 조항”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3. 8. 13.>

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

- 한국의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 수요 변화와, 부모의 보육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 것이다.
- 계획의 첫해인 2018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형 전환 지원과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 공제 상품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보육비용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 보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부모와 보육 현장을 모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 2020년과 2021년은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 및 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표준보육과정 개정 및 취약 보육 지원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와 함께,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강화와 보육 서비스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제3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표 II-2〉 연도별 주요 추진 계획 및 프로그램 (2018-2022)

주요 추진 계획	주요 프로그램 및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추진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공공형 전환 지원 - 어린이집 안전 공제 상품 및 시설 기준 강화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산 시스템 개편, 관리 효율성 증대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및 부모 양육 지원 강화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실시
표준보육과정 개정 및 보육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개정 및 평가 인증 시스템 도입 - 어린이집 보조 인력 확대 및 방학 도입 검토 - 취약 보육 대상별 지원 재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p>〈표준보육과정 개정 관련 세부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특성에 맞춰 표준보육과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영유아 교육 수요 변화, 누리과정 개편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춘 표준보육과정 개정 추진('19) ○ 표준보육과정의 확산·반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 및 직무교육* 반영, 보육과정 컨설팅, 평가제 반영 등 관련제도 연계 강화('19)* ○ 직접 관찰, 1:1 컨설팅, 모범 사례 동영상 제작·배포 등 교육 방식 다양화 2) 특별활동 개선 및 운영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부모의 수요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부모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운영기준 개선('19) -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시 기록의 무준수유도 및 운영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 관리 철저 * 특별활동 대상, 운영시기, 대체프로그램 제공 여부, 수납한도 준수 등 ○ 특별활동 공급기관 등록 제도 도입 검토('19) - 특별활동 제공기관, 운영 과목, 강사 등의 등록으로 특별활동제공 수준을 파악하고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부모 알 권리보장
보육교사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 및 처우 보장 - 품질 평가제 강화 및 부모 참여 시스템 도입 -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및 부모 지원 확대
공공성 확대 목표 달성 및 안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목표 40% 달성 - 민간 협업 확대로 공보육 인프라 개선 -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2. 제1차~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가. 제1차 표준보육과정

- 제1차 표준보육과정 (2010.9.7)의 목적, 구성 체계, 그리고 연령별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계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 영유아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 가치, 지식,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민족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설계되었음이 특징이다.
-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로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여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의 구성 체계 및 세부영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영역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 II-3> 제1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구성 체계	세부 영역	설명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식생활, 청결, 위생 등의 생활 습관을 기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함
	안전한 생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학습,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배려하는 습관 형성
	바른 생활	예절, 질서, 절약 등의 기본 생활 태도를 익혀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감각 능력을 길러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협응력과 균형감을 키우고, 이동 및 바이동 운동 능력을 기름
	신체활동 참여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여 즐겁고 안전하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함
사회관계	자기 존중	자아 인식을 통해 자신감과 독립심을 기름
	정서인식과 조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함
	사회적 관계	가족, 또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지냄
	사회적 지식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가능하게 함
의사소통	듣기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력을 기름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바르게 말하는 능력을 기름
	읽기	주변 글자와 그림책을 흥미롭게 읽으며 문해 능력을 기름
	쓰기	끼적이지기를 통해 글자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글로 표현하는 데 흥미를 기름
자연탐구	탐구적 태도	주변 사물과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름
	수학적 탐구	수량, 공간, 규칙성 등을 탐색하여 기초 수학 능력을 기름
	과학적 탐구	주변 사물과 생명체, 자연현상에 대해 탐색하여 기초 과학 지식을 쌓음
예술경험	예술적 감각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심미감을 기름
	표현활동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름

○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연령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청결 유지, 간단한 신체 움직임,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활동을 주로 포함한다. 만 2세 영유아는 청결 습관, 자신의 정서 표현, 사물의 수량과 공간 인식,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 등 사회적 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만 3-5세 영유아는 독립적 생활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습득하고 탐구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는 영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할 수 있는 포괄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표 II-4> 제1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구성체계	세부 영역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몸 깨끗이 하기, 즐겁게 먹기, 규칙적인 배설 습관 갖기	청결 유지, 바른 식사 태도로 먹기, 규칙적 배설 습관	청결 유지와 위생 습관, 바른 식생활과 의생활 실천
	안전한 생활	안전하게 놀잇감 사용, 위험 상황 파악하기	놀이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놀이, 위험 상황 알고 조심하기	놀이기구 안전 사용, 교통 안전 실천
	바른 생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 익히기	예절과 질서 지키기	예절 바르게 생활, 절약하고 질서 지키기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감각적 자극에 반응, 신체 탐색하기	감각기관 활용하기, 신체 인식하고 움직이기	감각 능력 기르기, 신체 각 부분의 구조와 기능 이해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대근육과 소근육 조절, 이동·비이동 운동 시도	신체조절력 기르기, 이동 및 비이동 운동 시도	다양한 이동·비이동 운동 능숙하게 수행
	신체활동 참여	신체활동 즐기기, 기구 사용 시도	신체활동 참여하기, 기구 이용 안전하게 신체활동	자발적 신체활동 참여, 여러 기구 이용 신체활동
사회관계	자기 존중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 자신에 대해 긍정적 생각하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사고, 자신감과 독립심 기르기
	정서인식과	자신의 기본 정서를	자신의 정서를 표현,	타인의 정서

	조절	느끼고 표현하기	타인의 정서에 관심 가지기	이해·공감,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
	사회적 관계	양육자와 애착 형성,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기	가족 관계 이해, 또래와 의사소통·놀이	또래와 협동, 갈등 해결, 공동체 규칙 이해·준수
의사소통	듣기	소리 구분하여 듣기, 일상적 말소리 듣고 반응하기	말소리 구분하여 듣기, 짧은 이야기·노랫말 듣기	이야기 듣기, 동요·동화 듣기
	말하기	발성·발음으로 소리내기, 몸짓과 소리로 의사 표현	사물 이름 말하기, 자신의 느낌·생각 말하기	감정·생각을 문장으로 표현,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읽기	그림책에 관심 가지기	읽어주는 글 즐기기, 그림책에 흥미 가지기	그림책 즐기기, 다양한 읽기 활동 참여
	쓰기	끼적거리기 시도하기	팔 전체로 끼적이기 시도, 쓰기 도구에 흥미 가지기	생각과 경험을 끼적거리기, 글자 형태로 쓰기
자연탐구	탐구적 태도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에 호기심 가지기	지속적 호기심 유지, 기초 탐구 기술 활용
	수학적 탐구	수량 지각(한 개와 여러 개 구별), 간단한 규칙성 지각	수 인식(하나, 둘, 셋), 위치·방향 관련 어휘 사용	수 개념과 도형 개념 형성, 자료 수집 및 분석
	과학적 탐구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 지각하기	주변 생명체에 관심 가지기, 자연현상 지각하기	물체와 물질의 특성 탐색, 다양한 자연현상 이해
예술경험	예술적 감각	소리와 색상에 대한 흥미 보이기	다양한 재료로 표현 활동 시도, 음악·미술 활동 참여	창의적 미술·음악 활동 참여, 감상하기
	표현활동	간단한 끼적이기와 색칠을 통해 표현 시도	표현 활동 시도, 자신의 감정 표현	여러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 감정 표현

※ 제1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임

나. 제2차 표준보육과정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며,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특히, 영유아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적 사고를 갖추어 자연과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2차 표준보육과정, 2012.2.29).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총 6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본생활영역은 건강한 생활 습관, 안전 및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체운동영역은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관계영역에서는 자아 존중과 타인과의 긍정적 사회 관계 형성을 통해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의사소통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연탐구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주변 사물과 환경을 탐색하며 수학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술경험영역은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심미감을 발달시키고 예술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표 II-5> 제2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구성 체계	세부 영역	설명	비고 (1차-2차 비교)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청결 위생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영역	구체적인 생활 습관 형성(청결, 위생, 규칙성 등)이 강조됨
	안전한 생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놀이와 교통 안전을 강조	교통 안전과 비상 상황 대처 능력 추가됨
	바른 생활	예절 질서 절약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바른 생활 태도를 기르기	다양한 상황에서 예절과 질서가 강조됨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도록 함	(1차)신체 기능과 구조 이해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음
	신체조절과 운동	대근육과 소근육 조절 기본적인 이동 및 비이동 운동 능력을 발달시킴	협응력과 균형 발달이 추가적으로 강조됨
	신체활동 참여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즐기며 체력과 운동 능력을 기름	기구 활용을 통해 자발적 신체 활동 참여를 독려함

사회관계	자아 존중	자아 인식과 자존감을 키우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	자아존중과 자존감 형성이 보다 명확하게 강조됨
	정서 인식과 조절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	타인의 정서 공감 능력 발달이 포함됨
	사회적 관계	가족과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공동체 규칙과 사회적 규범 학습이 강화됨
	사회적 지식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식을 습득	
의사소통	듣기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력을 기르는 활동	동요와 동화를 활용한 듣기 활동이 구체화됨
	말하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	다양한 문장과 표현을 통한 말하기 능력 발달이 강조됨
	읽기	그림책과 글자를 통해 문해 능력을 기르고,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임	그림책 활용을 통한 문해 발달이 구체화됨
	쓰기	다양한 쓰기 도구와 글자 모양을 통해 글자를 익히고, 표현 능력을 기름	쓰기 도구 사용과 문장 표현이 강조됨
자연탐구	탐구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기르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름	문제 해결 능력 발달이 추가됨
	수학적 탐구	수량, 공간, 규칙성 등의 수학적 개념을 인식하고 경험을 통해 기초 수학 능력을 기름	위치와 방향 인식을 포함한 수학적 사고가 추가됨
	과학적 탐구	주변 환경 생명체,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기초 과학 개념을 형성	과학적 탐구 활동이 보다 구체화됨
예술경험	심미적 탐색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해 창의성 발달과 심미감 형성을 돕는 영역	예술 활동 범위가 확장됨
	예술적 표현	자신의 감정을 음악, 미술, 동작 등 다양한 창의적 방식으로 표현	감정 표현과 예술 감상 활동이 추가됨
	예술 감상	자연물과 사물, 자신 및 또래의 작품, 예술 작품 등을 보고 느끼고 예술적 감상	예술분야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접근으로 확대됨

- 연령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청결 유지와 간단한 신체 움직임,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는 활동을 주로 경험한다. 만 2세 영유아는 기본적인 청결 습관과 간단한 정서 표현을 익히고, 수량과 공간 인식,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활동을 포함한다. 만 3~5세의 영유아는 독립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감정 조절, 사회적 규범 습득, 탐구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한 포괄적 활동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표 II-6> 제2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구성체계	세부 영역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몸을 깨끗이 하고 규칙적 배설 습관을 익힘	청결 유지, 바른 식사 습관, 규칙적인 수면 및 배설 습관을 익힘	독립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립함
	안전한 생활	안전하게 놀잇감 사용, 위험 상황 인지	놀이 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위험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짐	놀이 및 교통 안전을 준수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름
	바른 생활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익히며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	간단한 사회적 예절과 질서를 지키기 시작	다양한 상황에서 예절을 지키고, 공동체 규칙을 이해하며 실천함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고 신체 탐색을 통해 기본적인 신체 인식을 시작	자신의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신체 탐색 활동을 즐김	자신의 신체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며, 신체 인식과 감각 능력을 발달시킴
	신체조절과 운동	신체 조절과 균형을 위한 간단한 움직임과 이동 시도	다양한 신체 조절과 기본 이동·비이동 운동 수행	협응력과 균형감을 통해 복잡한 이동·비이동 운동을 능숙하게 수행함
	신체활동 참여	기본적 기구를 활용해 신체활동 시도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함	기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신체 활동을 자발적으로 즐김
사회관계	자아 존중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고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 형성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	자신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독립적 생활과 자존감을 기름
	정서 인식과 조절	기쁨, 슬픔 등 기본적인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기 시작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타인의 정서에 공감함
	사회적 관계	주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고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	가족과 또래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기본적인 규칙과 예절을 이해	또래와의 협동과 갈등 해결, 공동체 내의 규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
	사회적 지식	-	-	지역사회, 우리나라,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 갖기

의사소통	듣기	주변의 소리와 말소리를 구분하고 반응하며 듣기 시작	간단한 동요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며,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을 기름	다양한 이야기와 동화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력을 기름
	말하기	발성 및 몸짓으로 의사소통 시도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다양한 문장과 표현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눔
	읽기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 표현에 대한 관심을 보임	간단한 그림책과 글자를 보며 글자 모양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	글자를 인식하고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며 문해 능력을 발달시킴
	쓰기	끼적이기를 통해 쓰기 도구와 글자 형태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	다양한 쓰기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려고 시도	끼적이기에서 더 나아가 글자와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
자연탐구	탐구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간단한 탐구 활동 시작	수량과 공간 인식, 반복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호기심을 충족함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탐구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름
	수학적 탐구	수와 간단한 형태를 구분하며 주변 사물의 수량과 규칙성을 인식하기 시작	수량 개념을 익히고 간단한 위치와 방향 인식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시작함	수와 규칙성, 공간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간단한 분류와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킴
	과학적 탐구	주변의 간단한 사물과 생명체, 자연현상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탐구함	주변의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탐구를 시도함	다양한 과학적 현상을 탐구하고 이를 설명하며 기초 과학 개념을 이해함
예술경험	심미적 탐색	소리와 색상에 대한 흥미를 갖기	주변생활에서 예술적 요소를 발견하고 흥미 탐색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관심 갖기
	예술적 표현	소리와 몸 움직임으로 반응하고 단순한 미술경험을 시도하고 즐김	다양한 예술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모방이나 상상놀이로 표현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예술적 감상 활동에 참여
	예술 감상	친근한 소리나 노래를 즐겨듣고 아름다움 경험	주변환경과 자연 등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있게 보고 즐김	다양한 예술과 전통예술을 경험하며 풍부한 감성 기르기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임

- 제2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맞춤형 보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각 연령대의 영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제1차와 제2차 표준보육과정은 목적과 구성이 유사하게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나, 2차 개정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체계를 통해 영유아 발달을 세부적으로 지원하려는 차이가 존재한다.
- 영유아가 사회적 규범과 감정 조절을 익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폭넓은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려는 점이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영유아가 현대 사회에서 조화롭고 유능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

- 제3차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태도, 사회적 배려와 협력, 자연과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3차 표준보육과정(2013.1.21.)).
- 제3차 표준보육과정은 연령별 맞춤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주요 영역을 통해 다양한 발달적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7> 제3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구성 체계	세부 영역	설명	비고 (2차-3차 비교)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청결, 위생, 규칙적 생활 습관 형성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 강조됨
	안전한 생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습관	안전 규칙 적용의 실질적인 습득 강조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발달시키는 활동	발달적 차이에 따른 활동이 다양화됨
	신체조절과 기본운동	대근육, 소근육을 조절하며 기본 운동을 발달시키는 활동	
	신체활동에 참여	몸 움직임을 표현하고 기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시도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존감을 기쁨	자존감과 독립적 자아 발달 목표 구체화됨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발달	정서 조절과 사회적 공감 발달을 보다 강조

	더불어 생활	가족과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킴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 규범 발달 강화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 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존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구체적 접근 가능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등에 관한 관심과 이해	
의사소통	듣기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의 깊게 듣는 능력 발달	일상적인 소통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 강화
	말하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 발달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 적용의 구체화
	읽기	그림책과 글자에 관심을 가지며 문해 능력 형성	다양한 읽기 자료 활용 강조
	쓰기	다양한 쓰기 도구를 통해 글자를 인식하고 쓰기를 시도함	쓰기 도구와 글자 형태 인식의 다양성 확대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주변 사물과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 발달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활동이 구체적으로 추가됨
	수학적 탐구	수량과 규칙성, 공간 개념을 인식하고 기초 수학 능력 형성	위치와 방향에 대한 인식 및 수학적 사고가 강화됨
	과학적 탐구	주변 환경과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초 과학 지식을 쌓음	구체적 탐구 활동 추가 및 과학 개념 학습 강화
예술경험	이름다움 찾아보기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심미감을 느끼게 함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경험 기회 확대
	예술적 표현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과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발달	표현력과 감상 능력 발달을 강화함
	예술 감상	주변 환경과 자연, 다양한 표현에서 풍부한 예술적 감성 기르기	

- 연령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제3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연령별 맞춤형 보육 목표와 활동을 제시한다. 0-1세는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와 기초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 자아 인식과 정서적 안정의 기초를 다진다. 2세는 자율적 생활 습관과 초기 사회성 발달을 위해 기본 위생 습관과 신체 협응력을 키우며, 자기 표현과 타인 이해를 시작한다. 3-5세는 독립적 생활 습관과 사회적 규범 이해를 통해 사회·인지적 발달을 이루며, 다양한 표현과 문해 능력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자연탐구와 예술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자기 표현을 기르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표 II -8> 제3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구성 체계	세부 영역	0-1세	2세	3-5세 (*신체운동·건강)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몸을 깨끗이 하고 기초적인 위생을 유지함	스스로 손 씻기 정해진 자리에서 먹기 등 기본 위생 습관 습득	자율적인 창결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안전한 생활	안전하게 자나기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놀이 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 형성	교통 안전 규칙 숙지 및 비상 상황 대처 능력 발달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간단한 신체 움직임을 통해 감각적 인식 발달	기본적인 이동과 비이동 운동 수행 대근육과 소근육 조절 시도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해 다양한 신체 활동 참여
	신체조절과 기본 운동	신체 조절과 균형을 위한 간단한 움직임과 이동 시도	다양한 신체 조절과 기본 이동·비이동 운동 수행	협응력과 균형감을 통해 복잡한 이동·비이동 운동을 능숙하게 수행함
	신체활동에 참여	가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에 관심 가짐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협응력과 조절 능력 발달	다양한 신체 활동과 도구를 활용하여 운동 능력 향상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인식	자아 개념 확립 및 긍정적인 자아 인식 시작	독립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 가치관 형성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기초적인 정서(욕구와 감정) 표현 시작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짐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함
	더불어 생활	가족과 또래 집단과의 상호관계 경험 및 표현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간단한 갈등 해결 경험	다양한 관계 형성과 사회적 규범 이해 및 협동 경험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협력에 대한 이해
	사회에 관심 갖기	-	-	지역사회 및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의사소통	듣기	소리 구별과 간단한 반응 시작	간단한 이야기와 동요를 듣고 반응하며 듣기 능력 강화	이야기와 동화 듣기를 통한 공감 능력과 주의력 발달
	말하기	발성 및 기본 단어 사용 시도	간단한 문장을 통해 의사 표현	다양한 문장과 어휘를 통해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읽기	그림책을 보며 시각적 표현에 흥미를 가짐	글자와 간단한 이야기 책을 통해 글자의 모양과 쓰임 인식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기초 문해 능력 발달

	쓰기	까작카다와 단순한 쓰기 도구 사용 시도	다양한 쓰기 도구 사용 및 간단한 글자 형태 표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며 쓰기 능력 발달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주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호기심 발달	간단한 수학적 개념 인식 및 자연탐구 시작	다양한 자연현상과 수학적 개념 이해를 통해 탐구 능력 발달
	수학적 탐구	수량과 형태의 구별 시작	간단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며 기초 수학적 사고 발달	수와 규칙성 공간 이해 능력을 포함한 논리적 사고 발달
	과학적 탐구	주변 사물과 간단한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 발달	다양한 사물과 생명체에 대한 탐구 시작	다양한 과학적 개념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요소에 호기심 갖기	리듬과 미술 활동을 통해 예술 감각 형성	창의적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심미감과 표현력 발달
	예술적 표현	리듬과 노래 미술활동 등을 경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미술 음악으로 표현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창의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감상 활동 경험
	예술 감상	친근한 소리나 노래를 즐겨듣고 아름다움 경험	주변환경과 자연 등에서 예술적 요소를 관심있게 보고 즐김	다양한 예술과 전통예술을 경험하며 풍부한 감성 기르기

※ 제3차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임

- 제2차와 제3차 표준보육과정 간의 주요 변화는 구체성과 세분화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연령대 구분의 세분화: 제2차 표준보육과정은 연령별로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의 세 범주로 나누어, 큰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구분을 제시했다. 반면,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0-1세, 2세, 3-5세로 연령을 좀 더 세분화하여, 특히 0-1세의 영아기에 대한 발달 특성을 별도로 강조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보육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 둘째, 구체적 활동과 발달 목표 제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연령별 구성체계는 발달 목표와 활동이 비교적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제시된 반면, 제3차 표준보육과정은 각 연령대에 맞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각 연령대별로 발달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이 명확히 분리되어 단계적인 발달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었다.
- 셋째, 발달 영역별 세부 목표 강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은 발달 영역별 목표를 각 연령대에 맞춰 세부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제3차 표준보육과정이 연령별 발달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영유아가 각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경험을 세분화된 목표와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육과정의 실질적 효과성과 발달 적합성이 강화되었다.

라. 제4차 표준보육과정

-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자신의 개별성을 존중받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자율성과 협동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 어린이집 3~5세 보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이상의 국정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표 II-9〉 제4차 표준보육과정 구성체계 및 세부영역

구성 체계	세부 영역	설명	비고 (3차-4차 비교)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청결 위생, 규칙적 생활 습관을 익혀 건강한 생활을 도모함	자율성과 실천성이 강조
	안전한 생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며 생활하는 습관을 형성함	교통안전 및 비상 상황 대처 강조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감각 발달을 통해 대·소근육을 발달시킴	신체 인식과 감각 활동이 보다 구체화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대근육과 소근육 조절을 통해 다양한 운동 능력을 향상함	협응력과 균형감이 포함된 고난도 운동 강조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	자아 인식을 통해 긍정적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형성함	자존감과 독립성 발달 목표 구체화
	더불어 생활	가족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배우고 준수함	협동심과 사회 규범 이해에 대한 강조
의사소통	듣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주의 깊게 듣는 능력을 기름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듣기 강화
	말하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	상황별 맞춤 표현과 표현력 다양성 구체화
	읽기	글자와 그림에 대한 관심을 통해 기초적인 문해 능력을 기름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한 문해 능력 심화
	쓰기	쓰기 도구를 통해 글자와 문장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함	쓰기 도구 사용과 글자 인식의 다양성 강조
자연탐구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탐구적 사고와 문제 해결 강화

		능력을 기름	
	생활 속에서 탐구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름	수학적 규칙성과 논리적 사고를 생활 속에서 강화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표현하며 관심을 기름	심미적 태도와 다양한 표현 방식의 활용 강화
	창의적으로 표현	예술적 경험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및 감상 능력 발달 강조

○ 연령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차표준보육과정에서 만 0~1세는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신체와 감각을 인식하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감각적 탐색을 즐기도록 유도한다. 만 2세는 독립적인 생활 습관을 점차 익히고, 기본적 정서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함. 또한 기본적인 언어 사용 능력과 주변 환경에 대한 탐구 정신을 발달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만 3~5세는 개정누리과정이 적용되며, 자아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기르고, 기본적 사회 규범과 협동심을 배양한다. 또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 II-10> 제4차 표준보육과정 연령별 주요 내용

구성 체계	내용 범주	0-1세	2세	3-5세 (*신체운동·건강)
기본생활	건강한 생활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에 관심을 가지며 즐겁게 식사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 즐겁게 하루를 보내며 건강한 배변 습관 형성	청결을 스스로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확립
	안전한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며 안전하게 놀이	놀이 및 교통안전 규칙을 익히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함양	안전 규칙을 준수하고 비상 상황 대처 능력 강화
신체운동	감각과 신체 인식	감각을 통해 신체를 인식하고 기본 움직임을 통해 대·소근육 발달	다양한 운동 기구를 사용하며 신체의 조절 능력 발달	다양한 운동과 기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기본적인 균형감과 신체의 협응력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 경험	대근육 조절을 통해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며 신체 발달을 경험	협응력과 균형감을 포함한 고난도 신체 활동을 경험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적 관계 형성 및 자아 인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며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독립적 자아 존중과 자존감 확립

	더불어 생활	가족 및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상호작용 경험	또래와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초기 사회 규범과 협동의 개념 학습	다양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며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
의사소통	듣기	간단한 소리와 말을 듣고 반응	동요나 동화 듣기를 통해 듣기 능력과 주의력 발달	듣기를 통해 공감 능력과 이해 능력 발달
	말하기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 시도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소통 능력 발달	다양한 문장을 통해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능력 발달
	읽기	간단한 그림책을 보며 시각적 표현에 흥미를 가짐	글자 모양을 인식하며 간단한 글자를 읽으려는 시도를 통해 읽기 능력 발달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기초 문해 능력을 쌓고 글자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함
	쓰기	끼적거리를 통해 쓰기에 관심을 보이며 쓰기 도구 사용 시도	간단한 단어와 글자 모양을 표현하며 쓰기 능력 발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고 다양한 쓰기 도구를 통해 문장 작성
자연탐구 예술경험	탐구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탐색	사물의 특성을 감각적으로 탐구하며 수량과 공간 인식의 기초 발달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탐구 태도와 과정에 익숙해짐
	생활 속에서 탐구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며 수량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	간단한 수량과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생활 속에서 경험함	다양한 과학적 개념과 논리적 규칙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탐구하며 사고력을 기름
	아름다움 찾아보기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김	음악, 미술 등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찾고 탐구함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심미적 태도를 기르며 표현력 발달
	창의적으로 표현	간단한 리듬과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예술 활동을 즐김	익숙한 노래나 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표현하고 미술 도구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	음악, 미술, 춤 등의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창의적 자기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발달

- 제3차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성체계와 방향성의 변화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접근의 구체화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성의 확대이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초기 사회 규범 학습을 강조했다면, 제4차 과정은 이에 더해 공동체 내 역할 인식과 협동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사회관계영역에서는 나를 존중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규칙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 협동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 둘째, 탐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강조이다. 제3차 보육과정이 기초적인 탐구적 태도와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주변 환경과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제4차 과정은 이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을 강조하였다. 제4차 과정은 영유아가 일상 속에서 수학적·과학적 개념을 활용해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논리적 사고와 규칙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예술 경험의 표현 다양성 확대이다.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예술 경험이 주로 음악과 미술을 통한 창의적 자기 표현과 심미감 형성을 중점으로 한 반면, 제4차 과정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창의적 감정 표현과 심미적 감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예술 경험의 확대는 영유아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예술적 표현력을 기르고, 타인의 예술적 표현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마.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각 차수별 표준보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생활습관과 안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창의성 및 개별적 발달 지원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2차 표준보육과정은 발달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실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교사와 부모의 일관성 있는 접근이 부족하였다(보건복지부, 1998). 3차 표준보육과정은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나, 체계적 기초 교육이 부족해 학습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의 목표가 현장에서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개별화 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교육부, 2019).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아동 발달에 맞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교육부, 2019). 이는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환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육과정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계적 접근을 통해 일관된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합된 보육교육과정이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부모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 보육교육과정에서 공간과 놀이 중심의 교육이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며, 보육교실 환경과 디지털 학습공간이 새로운 보육교육과정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놀이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한국보육진흥원, 2022). 또한 해당 연구는 공간 혁신을 통해 유아의 발달과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디지털 도구 활용이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함
- 누리과정은 유아 발달을 위한 기초적 보육교육과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유아 발달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특히, 표준보육과정이 누리과정의 틀 안에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됨으로써 유아들의 전반적 발달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 유아의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이 있음을 논의함(육아정책연구소, 2022). 또한 해당 연구는 통합된 교육과정을 위해 단계별 연령별 교육 목표와 내용,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며, 교사와 부모의 의견 수렴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사회성, 전인적 발달을 중시하며 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과 놀이가 진행되도록 구성되었다. 반면, 누리교육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운영되는 통합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5개 영역의 교육 목표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은 각 영역별 구성이나 내용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였고 영유아교육에서 영아(0~2세) 표준보육과정과 유아(3~5세) 누리과정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이원화되었다, 이후 누리과정은 2011년 5세 유아, 2012년은 3~4세 유아 대상으로 통합·확대되었다(김경철, 김윤지, 2023).
- 표준보육과정이 유연성과 개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

정의 주요 사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연령별 적용에 관한 차이를 제외).

<표 II-11>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비교

구분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 주로 운영 - 영유아 전반 발달, 안전, 건강, 생활습관 형성 - 안정적 환경에서의 전인적 성장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 운영 - 아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 창의성,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 강조
대상 연령	- 만 0-6세 영유아	- 만 3-5세 유아
설립 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내용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신체 발달, 건강한 생활 습관, 정서 안정 - 일상 활동과 자율 놀이로 발달 도모 - 놀이와 학습 구분 없이 자연스러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영역: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전인적 발달 목표, 구체적 목표와 내용 - 협력 및 창의적 활동 강조
주요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중심 - 유연한 구성, 교사 재량에 따른 내용 차이 - 일관성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협력으로 전국적 통합 운영 - 표준화된 지침서와 가이드라인 제공 - 높은 일관성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공통점을 기반으로 영유아교육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진행하고,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아 관련 표준보육과정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영아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육아정책연구소(2011)와 한국보육진흥원(2022)의 연구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통합에 따른 내실있는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으로 전환

○ 최근 유보통합을 통해서 기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 0~2세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2023)는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을 재설계하여 2025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영아(0~2세) 표준보육과정과 유아(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개정·통합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표준보육과정 체계에서도 2012년부터 만 3~5세의 교육과정은 이미 국가수준의 통합교육체계인 ‘누리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표준보육과정의 0~2세에 영아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방향과 가이드라인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2024.6.27.)에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중 하나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이경화, 2024).
- 교육부(2024)는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최근 교육부(2024)는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0~2세의 표준보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0~1세와 2세로 구분됐던 표준보육과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식이다.
- 구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의 기본 체계는 연령대별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한다. 또 영역별 목표도 0~1세, 2세를 통합해 제시한다. 즉, 0~2세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 문해력(어휘력·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와 시도하기 등)과 기초역량(사회정서·생애학습·자기조절·신체운동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한다(교육부, 2024).
- 유보통합을 통해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통합, 그리고 누리과정에 연계한 0~2세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의미는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용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이석

순, 2007). 따라서 기존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변화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실행되어야 한다.

* (0~1세, 2세 영역 통합 방안) 6개 영역 → 5개 영역으로 조정

(현 표준보육과정) ①기본생활 ②신체운동 ③의사소통 ④사회관계 ⑤예술경험 ⑥자연탐구
 (개정 표준보육과정) ①신체운동·건강 ②의사소통 ③사회관계 ④예술경험 ⑤자연탐구

** (0~1세, 2세 영역별 목표 통합 예시) 신체운동·건강

구분	기존		⇒	개정	
	0~1세	2세		0~1세	2세
목 표	기본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경험한다.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신체운동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그림 II-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 이러한 예시로 표준보육과정에서 누리과정의 공통교육과정으로 통합된 누리과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중심·놀이중심 보육·교육 실행력을 높였으나, 여전히 교육과정 및 교수법 실행 과정에서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2023). 동일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행착오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은 더욱 넓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영유아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지성화, 2024)는 누리과정 운영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바, 이를 참조하여 향후 추진될 영유아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먼저 교육과정 연계 강화 시에는 교사용 지침서를 수준별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누리과정 운영 시 교사용 지침서 목표와 내용이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교사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사역량을 평가할 기준도 없어 교사 간 편차가 나타나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학교교육의 편입과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연계가 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와 적용에 논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유아교육과정은 유보통합에 따른 누리과정 연계 차원에서 개편(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존 6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에 맞춰 5개 영역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이 수립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누리과정의 적용과정에서도 도출된 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교사 연수 등의 구체적인 교육적 접근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즉, 신체발달 및 인지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영유아(0~2세) 시기별로 체계적·구체적인 교육적 접근이 이뤄짐으로써, 영유아로 하여금 최적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 및 교사연수 등이 병행되어 영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문헌연구의 결과

가. 보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필요성

-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1차에서 4차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또한 기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의 3-5세 교육과정이 10년전부터 누리과정으로 통합·적용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사항들을 교사 연수 등의 강화를 통한 일치화된 교육적 접근으로 강화해갈 필요성이 있다.
- 최근 개정된 표준보육과정(4차)은 유아중심 및 놀이중심 접근법을 도입해 창의성,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보육과 교육 간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통해서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효과적으로 대응·지원해야 하며,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일관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나. 0-2세 영아교육과정의 교육적 접근 필요성

-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0-2세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 및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안전한 환경이 요구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연령별 발달 특성을 반영해 0-2세 영아를 위한 놀이중심 활동과 탐구과정을 강조하며, 발달 수준에 맞춘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화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 최근 유보통합의 관점에서 영아기 교육은 놀이 중심과 발달 적합성을 중시하며, 유치원 누리과정과 연결성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아 발달에 적합한 단순 돌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이 아닌, 경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다. 미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

- 새롭게 개발·적용되는 0-2세 영유아교육과정은 유보통합에 따른 누리과정 연계를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6대 영역을 5개 영역으로 조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사 연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시기별 맞춤형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과 교사 연수를 병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과 미래 역량을 지원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III. 현장전문가 FGI 실시·분석

1. 연구방법으로서의 FGI
2. FGI 참여자
3. 자료수집 및 분석
4. FGI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5. 어린이집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6. 유치원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7. FGI 분석의 결론

Ⅲ. 현장전문가 FGI 실시·분석

본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나눠서 시행하였다.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이르면서 영아 교육과정과 영아 교육정책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연구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을 제작할 수 있었다.

1. 연구방법으로서의 FGI

본 연구는 영아교육과정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로, 영유아교육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점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FGI는 집단 내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논의가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을 깊이 있게 이끌어 내는 연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Morgan, 2007). FGI는 특정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상의 의사소통 형태로 집단면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여타의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김승혜, 2023; 윤정진, 임홍남, 2023). 이를 위해 영아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FGI 수행을 위하여 사전 질문지를 구성하고 배포하였으며, 영아 보육교사 집단과 유아교사 집단으로 나누어 FGI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FGI 참여자들이 상호 역동적으로 토의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하응용, 김예성, 2020). 상호 역동적인 의견 교류의 과정을 통해 영아교육과정 수립과 영아교육정책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각 집단별 의견을 수렴하면서 FGI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집단별로 다르게 제시되는 의견과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논의할 부분이 제안됨으로써 영아교육과정 및 영아교육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FGI 참여자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할 때는 초점집단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FGI는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Morse, 1995). 본 연구는 현재 수립되지 않았으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영아 대상 보육과정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영아교육과정의 수립 필요성과 영아교육정책이 운영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영아교육과정과 영아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FGI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전문가로 섭외하고자 하였으며(윤정진, 임홍남, 2023), 다양한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 도출되고, 저경력 교사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교육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은 모두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아교육과정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FGI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유보통합 과정에서 두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상호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대립할 수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집단별 FGI를 진행하였다. FGI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II-1 > FGI 연구참여자 정보

순번	이름	전공	학위	근무처	직책	현장경력
1	A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재학중	전북 전주	민간어린이 집 교사	원장 16년
2	B참여자	보육 유아교육	전문학사 학사재학중	전북 전주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	영아보육 7년 (만0세 5년) (만1세 2년)
3	C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전북 완주	기업어린이 집 교사	영아보육 4년 (혼합연령 1년)
4	D참여자	사회복지학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완주	기업어린이 집 원장	보육교사 10년 원장 11년 (영아 12년)
5	E참여자	유아교육	박사재학	전북 전주	민간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6년 원장 7.10년
6	F참여자	아동학 유아교육	전문학사 학사재학중	전북 전주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	누리보조 1년 영아보육 10년
7	G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군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7년 원장 10년

8	H참여자	사회복지학 상담학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전주	가정어린이 집 원장	보육교사 9년 원장 20년 (영아 20년)
9	I참여자	유아교육	전문학사	전북 군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3년
10	J참여자	아동복지학	전문학사 학사졸업	전북 군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10년 (영아 11년)
11	K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3년
12	L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박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수석교사	유아교사 38년
13	M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군산	공립 단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7년
14	N참여자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완주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18.8년
15	O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3년
16	P참여자	유아교육	전문학사 학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17년
17	Q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20년
18	R참여자	유아교육 유이특수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전주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18년
19	S참여자	유아교육	전문학사 학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6년
20	T참여자	유아교육	학사졸업 석사졸업	전북 익산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	유아교사 3년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 및 유치원 교사 총 20명 대상, 두 개의 집단별 FGI를 실시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주요 수집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집단별 FGI는 2024년 10월 중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1회와 2024년 11월 중 실시한 집중면담 1회로 진행되었다. FGI 오리엔테이션은 집단별로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 내 강의실에서 연구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전면담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실제 집중면담에서 심도 있는 의견과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면담 질문은 대학 교수인 세 연구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2인의 전문가(대학교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였다. 사전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III-2> 사전 배부된 FGI 면담 질문

[영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 영아 지도 경험과 교사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 대상 교육에 대한 관점과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유아교육과의 차이점, 목적, 방향성 등)
- 영아 대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아교육과정이나 영아 대상 교육 정책에 관해 직접 운영해 보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교육과정의 비전, 정책 추진과제]

-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육과 교육의 차이점을 인식할 때, 영아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북지역만의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특이점이나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까? (전북지역의 특성, 영아특성, 복지, 운영지원 등)

[교사역량강화 지원 및 문화조성]

-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역량강화 중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부분, 역량 향상 지원 부분 등)
 - 영아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 환경, 제도적, 정책적)
 - 영아교육과정과 영아교육 운영이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 성공적인 영아교육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별 오리엔테이션 후, FGI의 실제 집중면담은 집단별로 110분간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운영되었다.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운영된 FGI의 집중면담은 사전설문을 기반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연구참여자들이 관련 주제 안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를 꺼내 놓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FGI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나 사실을 기록하고 요약하고자 노력하였다(Creswell, 2003). 전문가 집단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토의토론과정과 연구자들의 기록·요약 과정은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생각과 인식,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김인애, 2024).

FGI 과정 중 녹음과 전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분석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다양한 질적연구분석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중심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주제분석방법과 더불어 현상학적, 내러티브 탐구, 문화기술지 등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공통적 주제를 도출하면서(김옥주, 장덕희, 2024), 개별 특성을 강조하는 질적연구의 특성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김인숙, 2016). 주제분석은 자료의 범주 내에서 대상자의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핵심주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강시온, 최은희, 2024), 본 연구에서는 영아보육을 담당해 왔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 유보통합으로 영아교육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의 의견과 생각 등을 토대로 핵심주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은 ‘자료 익숙해지기’, ‘초기 코드 생성하기’, ‘주제 탐색하기’, ‘주제 검토하기’,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 ‘보고서 작성하기’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강시온, 최은희, 2024).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별로 다음 표와 같은 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 III-3> 자료 분석을 위한 주제분석 방법 6단계

단계	단계명	분석 내용
1	자료 익숙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된 자료 정독하기, 주요 내용 표시하기 ■ 녹음자료 다시 듣기, 녹음자료와 주요 내용 비교 탐색하기
2	초기 코드 생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코드 붙이기 ■ 진술자료를 해체 연결하며 세부적으로 코딩하기
3	주제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코드별로 분류하고 묶기 ■ 관련성 있는 코드별 잠정적 주제 및 하위 주제명 부여하기
4	주제 검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들의 주제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진행하기 ■ 주제별 의미 확인 및 중요성 고찰하기

5	주제 정의 및 명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주제들의 범주화하기 ■ 범주별 특성을 고려한 범주명 부여하기
6	보고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주화된 주제 및 하위주제별 내용에 따른 보고서 작성 ■ 집단별 차이에 따른 집단별 결과 분석 및 비교 분석 진행

4. FGI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하는 20명의 현장 전문가들은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사전 질문지를 토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FGI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과 생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익명처리를 하여 제시된 내용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 내용 중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을 검토받으려 하였으며,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을 통해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FGI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1인 10만 원의 참여비가 지급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1인은 제외되었다. 비용 지급을 위하여 요청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정보 자료는 비용 지급 과정 외에는 활용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자료와 녹음자료 등은 영구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연구자들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구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 연구 발주기관이 요청한 기간 동안만 유지된 후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지킨 윤리성과 함께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연구의 내용의 사실에 입각하고, 인간의 경험적 의미에 접근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질적연구는 경험적 관점에 기반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및 현상에 대하여 세심하게 탐구해야 하고, 연구의 엄격성이 강조된다(김인숙,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원래 항해술에서 사용되는 위치 확인법으로,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측정한 값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는 것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정하는 기술을 지칭한다(Martine Robbeets 외, 2022). 이러한 방법을 차용하여 질적연구에서는 삼각검증법을 서로 다른 세 주체의 검증을 통한 연구의 엄격성을 논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FGI 수행과 분석과정에서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 그룹, 연구참여자 그룹, 자문 및 전문가 그룹의 세 집단의 검증을 통해 삼각검증을 실시하고,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여 FGI 연구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검토는 연구 결과가 연구 주제를 바르게 반영하고, 참여자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하용용, 김예성, 2020). 또한, 본 연구의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전문가 집단의 검증 과정 역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5. 어린이집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어린이집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는 ‘현장에는 이미 존재하는 영아교육과정’, ‘영아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영아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영아 교육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저출산 대책의 필요조건인 영아교육과정’,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범주화별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장에는 이미 존재하는 영아교육과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만나면서 이미 보육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실질적으로 유아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1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이 유아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 표준보육과정을 교육적 관점에서 개선하고, 영아의 발달적 특징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영아교육과정으로 개편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보육과정이 0에서 1세, 2세로 나뉘고 3세에서 5세는 누리과정으로 나뉘어요. 0세에서 1세, 그리고 2세의 보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사실 교육은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에 의거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4-가-1-A참석자-1)

놀이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처럼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6개 영역의 표준 보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미 교육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24-가-1-B참석자-1)

영아들의 발달 수준을 나누어서 시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들을 세세히 기록한 표준보육과정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표준교육과정 자체가 이미 교육의 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4-가-1-D참석자-1)

표준보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교육과정’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인 셈이죠, 6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표준보육과정에 0세에서 2세 사이의 보육과정도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0세도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24-가-1-F참석자-1)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영아교육과정으로 바꿀 것인지를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영유아 발달, 특히 0세에서 2세 사이 영아 시기의 발달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요소들을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24-가-1-D참석자-2)

현재는 영아부터 기관을 다니게 되는 사회적 변화가 생긴 상태잖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보육과 교육이 한 곳 차이인데, 보육이 교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이 보육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24-가-1-C참석자-1)

나. 영아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영아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아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서는 영아의 발달 단계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발은 생리작용부터 기초적인 생활습관인 식습관과 배변훈련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감각활동, 타인과의 기본적 상호작용 행동, 정서적 안정에 대한 지원, 언어발달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는 개월수에 따른 발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이 영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건 맞으나, 보다 체계적으로 영아의 발달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민감하게 반영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영아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양성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발달단계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며, 양질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더불어 양성과정과 연수과정에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영아에 대한 경험,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하여 실제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영아교육은 생애 첫 교육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아교육과정이 잘 수립되어 결정적인 시기에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고, 또 인재 양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가-2-E참석자-1)

교육자로서, 영아들이 먹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활동의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신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상호작용 역시 0세를 포함한 영아에게 언어발달 등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언어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자극을 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4-가-2-A참석자-1)

정서적인 안정이 빠질 수 없고요.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유아가 안정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아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4-가-2-C참석자-1)

0에서 2세는 감각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할 때에도 입에 넣고 물거나 빠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중점을 다양한 오감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4-가-2-G참석자-1)

제가 0세 담임을 5년간 해보니까 1월생 친구와 12월생 친구의 발달 단계가 확연히 차이 나더라고요. 유아는 기본적인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영아들은 발달 단계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수준 별로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보다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월 수가 많은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끼리, 개월 수가 적은 친구들은 적은 친구들끼리 교육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아요. (24-

가-2-H참석자-1)

추가를 하자면 물론 개월 수에 따른 단계별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똑같은 열두 단계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12월생이지만 발달이 빠른 아이가 있고 늦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각 개인이 가진 차이를 빠르게 판단해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24-가-2-J참여자-1)

놀이에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영화와 같은 매체를 보면 같은 연령이어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건 모든 영아에게 같은 교육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사실은 놀이를 통해 모방 운동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또래의 영아끼리 협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영아끼리 어느 정도 발달 수준이 비슷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24-가-2-H참석자-2)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또 보수교육(연수)을 통해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동 발달에 대한 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이것저것 배웠어요.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오랫동안 일한 후에 기존에 공부했던 책을 보니 전혀 달랐죠. 현장실습, 그러니까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24-가-2-D참석자-1)

영아교육과정은 유보통합과 관련되어 있고, 교사들의 자격이나 자질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보육교사들이 교육원 1년 과정을 수료해서 보육교사가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연수를 통해 승급교육을 받아서 3급에서부터 올라오기도 하고. 또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영아의 발달을 얼마나 상세히 이해하여 풀어서 영아교육을 하느냐, 이것이 개선점이라고 생각해요. (24-가-2-B참석자-1)

만약 유치원 교사들도 기존보다 낮은 연령,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사이 등을 교육대상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도 0세에서 2세 사이의 영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사들은 주로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격이 있으니까요. 영아의 발달에 대해 이해를 해야겠죠. (24-가-2-F참석자-1)

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아보육의 문제점을 토대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아를 대상으로 전개할 교육과정은 영아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과도한 행정 중심적 운영이 아닌 영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영아와 유아 대상의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은 별개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하나의 형태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의 세부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리 운영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을 개선한 영아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론 부분도 강조되며,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디지털·AI 등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현재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따른 양육과 보육환경의 변화 역시 새로운 영아교육과정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현장의 상황과 맥락

을 고려한 실제성 있는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보육과 교육에 종사해 온 교사와 원장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요구되었다.

생후 100일 전후의 영아의 경우는 먹고 자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영아들의 경우 평가 인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평가 인증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는 아이들의 일지를 써야 한다는 것. 매일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평가 인증에 있어 존재하는 모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24-가-3-H참석자-1)

유보통합 때문인지, 영유아 관련해서 이런 정책토론회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영아만 따로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열리지도 않았고요. 영아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토론회는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24-가-3-C참석자-1)

저도 호주나 독일 등 나라에 연수를 가서 보면 영아만 따로 구분 지어 놓은 곳은 없었어요. 사실 영아반과 유아반이 분리되는 되어 있지만, 영아 따로 유아 따로는 없었던 것 같고. 보통 영유아 교육과정이 같이 있는 거죠. (24-가-3-F참석자-1)

표준보육과정과 영아교육과정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를 처음부터 하고 새로운 영아교육과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표준보육과정을 어떻게 보완하여 합리적인 영아교육과정으로 바꿀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현장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4-가-3-B참석자-1)

우리나라는 이론과 환경이 분리된 상황이에요. 과거에 배웠던 아이의 발달과 현재 보는 아이들은 달라요. 배속에서부터 이미 아이들이 와이파이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고 3, 4개월 정도 되면 뒤집고 나서 바로 엄마 핸드폰을 하면서 손가락을 움직여요. 모델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24-가-3-F참석자-2)

보육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가보면, 나오는 강사와 교수진 모두 교과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 중심의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을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면 어떨까 해요. (24-가-3-B참석자-2)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정말 예전 아이들을 모델로 보고 교육을 받는 느낌이에요.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교육을 통해 배운 모습들은 사실 현장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받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24-가-3-E참석자-1)

영아교육과 관련하여 실제성을 반영해야 되고, 현장전문가가 존중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정책이든 교육과정이든, 현장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24-가-3-A참석자-1)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영아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교사 양성과 인력 수준 측면의 의견도 있었는데,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사자격과정과 영아교육을 위한 교원양성체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영유아교원에 대한 자격과정이 개선된다면, 그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과정이 통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

에 교육공무원인 유치원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현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였다.

저는 유치원 교사 임용공부를 수년 해봤어요. 종일반 교사도 했고, 병설에서 기간제도 했고, 어린이 집에서 교사도 했어요. 양쪽을 다 해봤는데, 유치원 쪽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정교사가 아니면 채용을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정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니 우리와 다르거든요.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격과정을 현실적으로 바꾸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24-가-3-J참여자-1)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처럼 보육교사, 유아교사도 따로 봉급표를 두고 두 가지 전문가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문대를 나온 선생님이 계시고, 4년제를 나온 선생님이 계시고, 또 대학원을 나온 선생님이 계시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관에 있을 때는 같은 위치더라도, 정책이 바뀌어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유아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봉급표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24-가-3-C참석자-1)

현장의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그거예요. 공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공부 하겠다. 다만 제대로 된 통합 영유아 교사 자격과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영유아교육과정을 완성하고, 그에 맞게 연수든 보수과정이든 만들어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24-가-3-H참석자-2)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영아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과정을 이원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영아전담 자격과 유아전담 자격으로 이원화하고, 영아교육과 유아교육을 모두 수료해 본 후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는 선생님들은 별도 내지는 추가교육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면 되죠. (24-가-3-D참석자-1)

교사 처우 개선과 연계되면서 영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영아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이상적인 교사와 영아 비율과 혼합연령반 편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발달이 느린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장애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임을 어린이집 교사들은 강조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 간 다소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영아 대상의 차량 운행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사실 교사와 영아의 비율이에요. 표준보육과정도 매우 좋은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아 놀이중심, 감각놀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현재의 교사와 영유아 비율로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24-가-I참여자-1)

현재 0세 영아의 경우 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보는데, 한 명에게 분유를 먹이려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남은 두 명을 돌볼 수가 없어요. 분유를 먹이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통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보조인력을 쓰는데 문제가 많아요. (24-가-3-H참석자-2)

현재의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하려면 교사들이 영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 관찰을 바탕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혼자서도 넘어지고 지치거든요. 그러니 안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교사 인력을 충원하든지, 담당하는 영아 수를 줄인다든지, 이것부터가 새로운 영아교육과정의 시작일 거라 생각해요. (24-가-3-D참여자-1)

0세의 경우는 교사 1명이 2명의 영아를 담당하거나, 교사 1명과 보조교사가 함께 3명의 영아를 담당하는 형태가 적합한 것 같고요. 1세의 경우는 현재 1대 5의 비율인데, 1대 3의 비율이나, 1대 4 또는 5일 경우 보조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세의 경우는 1대 5 정도면 적당하고요. (24-가-3-E참여자-1)

혼합연령반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연령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데, 너무 불안해요. 연령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0세는 기어다닐 때 2세는 뛰어다니기도 하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많아요. 서로의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24-가-3-A참석자-2)

하지만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연령반을 무조건 없애지는 못해요. 어린이집 수익이나 운영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만 0세는 신체 성장도 그렇고, 많이 자야 하는 것도 그렇고, 0세를 포함한 혼합반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4-가-3-D참석자-2)

발달이 좀 늦다거나 혹은 ADHD 증상이 있어 따라갈 수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을 하위반 편성을 해서 1년 더 다니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실제 운영에 적용하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유효한 법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요. (24-가-3-I참석자-2)

현재 차량 운행으로 영아를 이동시키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선 0세 영아의 경우는 다방면으로 매우 위험하고요. 0세가 아니라도 차량 안에서 몸이 계속 흔들려 성장에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차량 운행은 주변의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어린이집을 다 문 닫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4-가-3-H참석자-3)

라. 영아 교육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영아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어린이집과 보육 전반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영아교육이 유아교육과 같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영아를 교육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영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호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아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영아교육과 영아학교에 대한 명칭 설정부터, 교육과정 운영 방안, 교원자격에 대한 법적 설정 등이 모두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지켜봐 왔는데, 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에도 현장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말씀은 거의 묵살했고, 정책토론회나 국회를 가보면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과 교수님, 사회복지과 교수님, 가정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과 교수님들도 영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사실 현재의 어린이집은 영아를 관심 있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24-가-4-J참석자-1)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보통합이 시행된다는데, 안전하게 시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영아교육

관련 조례라든가 영아교육에 대한 지침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큰 애로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24-가-4-I참석자-1)

아마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부분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법제화와 관련한 이야기일 거고요. 특히 유보통합으로 이 법적 기반 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영아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 생각해요. (24-가-4-C참석자-1)

현재 0세에서 2세는 표준보육과정이고 3세에서 5세는 누리교육과정으로 다른데, 유보통합에서 이원화로 갈지, 교육과정을 통일할지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련 업무는 기피 업무가 되었고, 영아학교와 유아학교 명칭도 그렇고,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24-가-4-D참석자-1)

교원자격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텐데, 유아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중 임용고시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보육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자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합니다. (24-가-4-F참석자-1)

유보통합으로 인해 영아교육전담교사, 유아교육전담교사와 같이 교원자격 정비를 해야 하는데, 이때 영아만 전담할 것인지, 유아만 전담할 것인지, 혹은 둘 다 전담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여서 교육과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거죠. (24-가-4-F참석자-1)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채용의 차이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활동, 교육내용, 복지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많아 평등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영유아들의 경우 장애 판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판별에 대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독특한 특성을 지닌 영유아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영유아 시기는 보육과 돌봄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부분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죠. 특히나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교육부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채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동나이대여도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차이가 발생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죠. (24-가-4-A참석자-1)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을 위해 무상보육을 하려는데, 극복해야 할 저출산 문제는 채용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원화되어 있는 재정 지원이 단일화되어야 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아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특별활동비가 수익자 부담이고, 유아는 더 많은 활동을 해도 수익자 부담이 없는 상황이죠. (24-가-4-H참석자-1)

어린이집의 경우도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등 여러 형태를 만들어서 재정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차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24-가-4-H참석자-2)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이나 장애 선별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부모들이 발달이 늦다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특수교사 지원도 전혀 없고,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 반 편성을 해도 여전히 지원이 없어요. (24-가-4-B참석자-1)

엄마들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장애라고 판정을 받아 올 수는 없다고 해요. 쉬쉬하는 분위기죠. 그런 경우의 아이들은 발달이 늦어 따라갈 수 없으니 하위반 편성을 하고, 보조교사 한 명을 해당 반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요. (24-가-4-D참석자-2)

현재는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3명 이상 있어야 특수교사를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는 1명의 특수교육대상자나 장애아라도 있으면 그 아이를 신경 쓰느라 다른 아이들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자폐증 유아 같은 경우는 정말 1대 1로 보육을 해도 정신이 없는데, 나머지 6명이 소외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제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녀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석해서 다른 친구의 손을 잡으면,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다고 좋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책이 필요해요. (24-가-4-E참석자-1)

마. 저출산 대책의 필요조건인 영아교육과정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의 FGI를 통해,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영아교육과정의 마련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필요조건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부모가 직접 영아를 키우고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 아이라도 정성스럽게 체계화된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부모님들이 굳이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간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출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4-가-5-C참여자-1)

어느 국가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영아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출산율이 올라갔던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몇 개의 국가에서는 이미 영아와 유아의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따라가야 한다 생각해요. (24-가-5-J참여자-1)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무상교육처럼 무상보육이 시행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끼리도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차별받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엄마도 우리 아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다니고 있어. 혹은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은 다 똑같고 돌봄도 다 똑같은데, 이런 상태라면 무상보육은 어렵죠. (24-가-5-H참석자-1)

유일하게 어린이집에만 같은 국가의 같은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차등 지원이라는 게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유치원도 말이 무상교육이지, 어린이집처럼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차별지급이거든요. 결국 동일한 수준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불가능한 거죠. (24-가-5-D참여자-1)

지금 초중고의 교육비와 급식비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행하듯이, 영유아도 무상교육을 실행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실제로 시범학교 운영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도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즐기고, 저출산을 막으려면 지원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아들의 경우 민간에서 해왔다면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24-가-5-A참석자-1)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도서벽지든 농촌지역이든 모든 영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반영되어야 가능하겠죠. (24-가-5-G참석자-1)

장애나 특수교육대상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금 특이한 영아나 유아의 경우에 지원이 없고, 해당 아이를 신경 쓰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어려워지니..... 그래서 결국 한 달 동안 그 아이의 엄마를 설득해서 아이를 다른 보낸 케이스가 있거든요. 진정한 무상보육과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그리고 여타 발달이 느린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24-가-5-F참석자-1)

요즘 젊은 부모들이 밤에 일하는 경우도 많고, 술 문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이나 긴급보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4시간 운영하면서 긴급한 경우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가-5-H참석자-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자꾸 보육을 책임져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직장 문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일을 충분히 해. 아이는 우리가 볼게.'의 형태로 가는데, 이런 문화에서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24-가-5-D참석자-1)

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 10명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직업도, 생활도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영아의 특성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영아교육과정 수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워낙 도서 벽지에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은 1대 1의 보육을 할 경우에 운영이 불가능하죠.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부득이하게 혼합연령반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교사의 수급이나 운영비 지급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4-가-6-B참석자-1)

전북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청장년층의 유입도 줄어들고 있어요. 또 농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언어 발달이나 행동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상으로는 같은 반에 있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4-가-6-E참석자-1)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들을 조부모께 위탁해야 할 수도 있는데, 조부모가 거주하는 이런 시골에서도 아이들을 자유롭게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에 보낼 수 있다면, 전북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성공적인 영아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4-가-6-G참석자-1)

영유아를 돌보다 보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한데, 실제로 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 도 차원에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부모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을 어느 정도는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업교육 다 받잖아요. 그와 비슷하게요. (24-가-6-D참석자-1)

6. 유치원 교사 대상 FGI 실시 결과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는 ‘영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엇갈린 시선’, ‘영아교육의 목표와 중점은 표준화, 연계성, 개별성에 기반한 기본 교육’, ‘영아교육과정 수립·운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영아교육의 유치원 적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줄이는 영아교육정책’, ‘수준 높은 영아교육과정은 교사와 지원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으로부터’,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정책’의 내용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범주화별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엇갈린 시선

본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영아 대상의 교육과 보육에 대해 상호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영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영아교육과정이라는 용어와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였고, 일부 교사들은 유아에 대한 교육은 인정하나 영아는 보육의 관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육과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유치원 교사는 두 활동 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교사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는 경향적 차이를 보였다. 본 FGI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의 경우, 영아 역시 교육의 대상이고 영아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많았으나, 유치원 교사가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존재하였다.

저는 영아에게는 교육보다는 보육이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사실 영아 ‘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고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24-나-1-참석자K-1)

영아교육이라고 하니깐 조금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아교육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고요. 영아를 가르친다? 영아를 보육하는 것이 더 낫지. 영아를 교육한다는 말은 좀 와닿지가 않는데... (24-나-1-참석자L-1)

보육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들의 배변훈련과 같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주는 기초적인 것들이 보육이라 생각하고요. 교육 쪽은, 뭐랄까, 인지나 창의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특정한 목표가 존재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교육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24-나-1-참석자O-1)

영아교육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나누신 부분들이지만 보육과 교육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고, 영아들한테도 교육을 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영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 자체가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나뉘지는 쪽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24-나-1-참석자P-1)

저는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네요. 감각추구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요점이구요. (24-나-1-참석자T-1)

어쨌거나 둘 다 비슷한 점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인적인 발달을 이끌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아 대상 보육은 교육보다는 영아들의 기본적 욕구를 더 충족시켜 주고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등 생존과 관련된 것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은 다양한 아이들 끼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나-1-참석자Q-1)

놀이 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했잖아요. 교육의 질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서 참 좋았는데, 사실 선생님들 모두 다 영아가 익숙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원 석사 때 함께 공부하던 영아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사례 발표하거나 할 때 그분께서 굉장히 많이 울고, 힘들었던 점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24-나-1-참석자P-1)

유아교육과 영아교육은 방향과 목적 자체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과 보육이 어떤 비율로 운영되는지는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영아들은 보육을 우선으로 하고 교육의 비율은 낮추고, 3세에서 5세 사이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비율을 높이고 보육의 비율을 낮추고. 이렇게 비율의 차이가 있고, 방향과 목적은 같다고 생각해요. (24-나-1-참석자Q-1)

이번 기회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영아교육과정'을 검색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많이 없더라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차이점이나, 교육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 영아하고 유아하고 나이가 다르고, 발달단계도 다르고요. 영아 시기도 발달단계상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24-나-1-참석자N-1)

영아교육과정의 운영방식에 대해 유아교육과정과 별도로 운영해야 할지, 통합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근무하는 유치원의 사정, 상황, 환경 등이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격 등의 차이로 인한 생각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보육교사 경험, 대학에서의 보육교사 실습 경험, 혼합연령반 지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영아들 역시 인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게 이루어져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유아교육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나-1-참석자Q-1)

유보통합이 돼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모두 함께 지도한다면, 기준선이 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0세에서 2세 사이는 당장 유치원에서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2세 아이들은 전에도 가르쳐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이 나온다면 보다 많은 유치원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4-나-1-참석자T-1)

저는 별도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급의 차이라고 봤을 때,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가 있듯이, 저희가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유초이음을 한다고 해서 유초등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된다고 해서 통합교육과정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령이 다르다면 통합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이 아닌 연계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나-1-참석자S-1)

저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지금 소인수 학급에 있고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혼합연령에 있어서 3, 4, 5세를 한 학급에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의 수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에 0세부터 5세까지 교육과정을 함께 짜서 그걸로 수업이나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유보통합이 돼서 영아와 유아가 함께하는 활동을 찾아야 된다면, 저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수립되어서 명확한 기준과 차이를 두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담긴 사례집 등이 따로 개발되어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4-나-1-참석자R-1)

나. 영아교육의 목표와 중점은 표준화, 연계성, 개별성에 기반한 기본교육

영아교육의 목표와 중점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교육과정(유·초·중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기초생활습관과 기본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기본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한 기초생활습관과 기본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었다. 또한,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으로 개발되어 지역과 환경에 따른 차이 없이 균질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이 있음도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기초기본교육은 영아부터 초등, 성인까지 연계가 되어야 하고, 그중 영아에게는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육을 해주잖아요. 보육 측면은 어느 정도의 기초기본의 개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정이 있듯이, 영아에게는 어떻게 현재의 유아교육과 연계성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4-나-2-참석자K-1)

영유아는 사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기거든요. 영아교육을 도입했을 때 신발을 신는 등의 기초 생활습관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이후 유아교육과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

게 해야 하죠. (24-나-2-참석자M-1)

기본 생활습관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줄 서는 것, 선생님 말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 사회성과 안전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잖아요. (24-나-2-참석자N-1)

특수교사가 개별화 교육과정을 짜는 걸 봤는데, 정말 세세하게 짜요. 그걸 보면서 0세 아이들도 보조 인력이 있거나, 지원을 받아서 협력교사처럼 들어가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세세하게 지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신발 신는 것을 지도한다면 협력교사로 들어간 선생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신발장 문을 열고, 한쪽 신발을 먼저 신고, 다른 쪽 신발을 신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24-나-2-참석자L-1)

0세부터 1세의 사이의 아이들은 사실 크게 가르칠 게 없지만, 목표가 잡혔을 때 과정을 잘 세분화해서 지원인력이 함께 들어가 도와주면 0~1세 사이의 아이들도 교육의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24-나-2-참석자P-1)

지금 그런 것처럼, 이렇듯 기관끼리 교육 철학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영아교육과정을 놀이과정처럼 통일해서 현장에 보급을 해준다면 교육의 질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습니다. (24-나-2-참석자S-1)

영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과정은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세밀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교사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유아기 발달이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그 발달은 개월 수에 따른 보편적 발달과 개인차에 따른 개별 발달의 차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아이가 발달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개인차가 무척 커서 어떻게 그 개인차에 맞게 예외를 둘 것인지 보다 폭넓게 생각하는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24-나-2-참석자T-1)

0세는 달별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4~5세로 성장할수록 그런 차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개월에 따른 차이와, 개인차를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24-나-2-참석자O-1)

영아는 발달 단계가 많이 미세하기 때문에, 이렇듯 미세한 단계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영아는 신체적 발달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인지적인 내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4-나-2-참석자S-1)

교육과정에 운동이나 건강 기준이 있고 그 안에 또 세부목표가 있듯이,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냐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24-나-2-참석자M-1)

개별성과 관련해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책이 필요해요. 교사는 아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에 반해 부모는 아이를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조금 늦는 거예요. 아이 아빠도 좀 늦었고, 할아버지도 늦었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발달장애나 정서장애 등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24-나-2-참석자K-1)

선생님 말씀대로 진단을 받아보려고 병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님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하셔서 진단을 미루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진단을 받더라도 기준 인원을 넘지 않으면 따로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지의 기준으로 지도사를 지원해 주는데, 발달 수준이 기준이 아닌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24-나-2-참석자L-1)

다. 영아교육과정 수립·운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영아교육과정의 개발, 수립, 운영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표준보육과정이 교육과정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특성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사례집 발간과 공유, 관련 연수와 교사 대상 교육의 진행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도와 정책도 함께 만들어지면서 현장에서의 운영에 대한 접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0세부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우선 환경 부분부터 달라져야 해요. 저희는 3세에서 5세까지 지도를 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오면 시설부터 모두 달라져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단계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0세부터 5세까지 모두 함께 지도를 해야 한다면, 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24-나-3-참석자M-1)

영아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걸 유치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유아교육과정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되, 실제로 함께 교육을 할 때에는 추후에 사례집 등이 따로 발행되고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4-나-3-참석자O-1)

좀 큰 아이들은 사고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자제력이 있기도 하고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영아는 그 규칙을 알 수 있는 발달단계가 아니에요. 자기 감각대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다칠지 뜨거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만져보고, 그러면서 탐색하잖아요. 그런 영아를, 교사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다수를 맡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보육이었지만, 교육으로 바뀐다면 교사와 영아의 비율을 더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생각해요. (24-나-3-참석자K-1)

보통 아이들이 뒤집고, 앉고, 기고, 그리고 서잖아요. 저희 아들은 기는 걸 건너뛰었어요. 욕심이 많아서요. 반면 저희 딸은 일반적인 순서와 똑같이 발달했는데, 그중에서도 기는 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서로 달라요. 제 아이들만 해도 이렇게 다른데, 둘보다 많은 영아를 모아놓으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이 개인차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할지,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24-나-3-참석자Q-1)

교육과정이 놀이교육과정으로 통합된 것처럼, 내년이면 이 통합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부에

서는 말하고, 저도 2년 동안 관련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유치원 교사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인식을 좀 바꾸어가며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24-나-3-참석자S-1)

영아교육을 운영하려면 영아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영아를 보육이 아니라 교육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24-나-3-참석자T-1)

영아보육과 교육이 저출산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생각해요. 교육현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후에 도움을 받겠지만, 이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여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돕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출산을 생각하니까요. 저출산에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24-나-3-참석자M-1)

영아교육 운영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다니는 직장의 상황과 같은, 제도·국가적 차원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의 운영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4-나-3-참석자N-1)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남의 손에 내 아이를 맡기게 만들면서 그것이 최적이라고 하기에는......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출근할 때 아이를 깨워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이는 울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이 보살펴주어도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엄마가 언제 오나, 내가 언제 집에 갈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다른 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4-나-3-참석자O-1)

라. 영아교육의 유치원 적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줄이는 영아교육정책

유치원 교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아교육이 유치원으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자원측면에서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 및 환경측면의 차이에 대한 우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경험 부족에 따른 걱정과 더불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안정적 근무환경과 운영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사로서의 적용에 대한 걱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 보육과 교육의 이질적 운영 과정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 유보통합과 영아를 유치원이 수용하게 되면, 보육 쪽에 적용되고 있는 민감한 내용이 유아교육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었다. 특히, 교실 내 CCTV의 부착과 운영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유보통합이 되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령을 나눠서 진행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 거의 함께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유치원에서 유보통합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지 말해보거든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유아들만 가르쳐왔고, 영아들을 돌보

지 못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또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만 2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24-나-4-참석자P-1)

지금 유아교육 선생님들은 영아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자기 자녀 이외에는 영아를 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4-나-4-참석자S-1)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는 누워 있는 아이들도 많고 감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시설도 그렇고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손봐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0~2세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시설을 바꾸어야 하나까요. (24-나-4-참석자T-1)

교육현장에서 환경 부분이나 교사 지원 부분이나 자격 관련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2년 차, 4년 차 이렇게 근무하신 선생님들의 앞날에 있을 '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것이 많고. (24-나-4-참석자K-1)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비율이 낮고 지도사라는 보조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 영아도 같이 투입이 되면서 만일 영아 대상으로 개별화 교육이 만들어진다면 현장에서는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교육과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만, 보조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4-나-4-참석자P-1)

전북지역에는 한 학급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유효교실 등의 공간들이 거의 없어요. 병설유치원은 사무공간과 교실 하나만 있는데, 영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당장 3세한 테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데, 이제 추가적인 인력이나 확실한 제도적 개선 없이 0~2세의 영아까지 이런 공간에서 보살피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영유아 중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제대로 된 교육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4-나-0-참석자M-1)

교육과정이 도입됐을 때, 교육시수가 교사별로 배당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영아를 함께 받으면 쉬는 시간이 확보가 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지원이나 구성 등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거죠. (24-나-4-참석자N-1)

이게 좀 중요한 문제고 제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도 좀 예민한 부분인데, 어린이 집에 CCTV가 있어서..... 유아교육법이 제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바뀌었잖아요. 이걸 유보통합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학부모의 관여도 그렇고, CCTV가 많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24-나-4-참석자Q-1)

CCTV를 설치하면 일정 부분 감시당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학부모가 봤을 때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보지 않고, 그 시점에서 보이는 행동만 목격하게 되는 것이 CCTV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고 장면만 녹화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24-나-4-참석자S-1)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의 단점, 그러니까 '장면'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수학급의 아이인데, 반이 전체적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방해를 하니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만 봤을 때 어땠겠어요? 선생님은 어른이니깐, 우리 아이를 힘으로 제압했구나. 그 상황을 본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엄청 화가 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등원 지도하면서 학부모와 유대감이 형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

리니까 이해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CCTV의 그 단점은 저도 정말 공감해요. (24-나-4-참석자T-1)

어린이집에는 CCTV가 있고 유치원에는 CCTV가 없는 이유가, 영아는 아직까지 자신의 구체적인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CCTV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설치가 된다면 열람의 조건과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경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제약이 필요해요. (24-나-4-참석자K-1)

마. 수준 높은 영아교육과정은 교사와 지원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으로부터

영아교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할 교사와 교육 관련 지원인력(특수지도사, 봉사인력, 도우미 등)의 충분한 양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었다. 또한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교사를 비롯한 관련 인력의 보수교육(연수)과 연수 등에 대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또한 교사와 더불어 영아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교사와 영아의 비율이 1대 3이었는데, 교사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아 셋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 반 선생님께 한 명을 맡기고, 다른 두 명은 양팔에 안고서 화장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 키울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까지 안고 가는 경우. 인력 지원이 충분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4-나-5-참석자L-1)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사 지원은 따로 없고 특수교육지도사도 부족한 실정에, 도우미 형식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분들은 하루 4시간까지밖에 고용할 수 없고, 더 큰 문제로 시급이 너무 적었어요. 최저시급도 주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유치원에서는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실령 지원자가 있더라도 전문성 같은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24-나-5-참석자N-1)

저희는 완전 통합이거든요. 특수교사도 있고 특수지도사 도우미도 있는데, 좀 욕심을 부린다면 그분들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해서 정식으로 연수를 받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 후에 아이들을 돌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우미로 왔으면 그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고서 지도를 하셔야 하는데, 돌발행동을 하면 마냥 제지하고 앉혀두기만 하고.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연수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4-나-5-참석자O-1)

만 3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적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가 몇 달간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수업도 해보고, 그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정식 보수를 받으면서 한다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비 같은 개념으로 일했어요. 제가 활동을 했을 때는 그래도 대학교 3, 4학년,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유아교육에 대하여 지식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을 보냈거든요. 만약 기관에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도 특수교육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구하고 싶다 한다면 이렇듯 학부모들 중에서도 지원자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4-나-5-참석자K-1)

보조 인력이라는 게 ‘보드미’라는 개념으로 오잖아요. 보드미를 채용할 때 기준이 되는 자격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수 영유아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에 따른 교육적 지식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돌발행동을 보였을 때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없고……. (24-나-5-참석자S-1)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유치원이나 영아에 보다 집중해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시니어 사업이라고 해서, 아침 일찍 등원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시간문제가 많이 생겨요. 너무 일찍 오면 저희도 문제거든요. 저희는 8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학부모도 8시 반까지 직장에 출근을 하려면 7시나 8시에 기관에 맡겨야 해요. 저희는 7시 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연수와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오시면 좋겠어요. (24-나-5-참석자P-1)

보조인력 등이 아이들을 돌보게 하려면 그분들도 자격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책임과 의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예전 익산 지역에 아침 일찍 돌보는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그렇게 운영되려면 법적 체계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4-나-5-참석자Q-1)

영아교육을 위해서 영아교육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게재되었다. 유아교사들이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보수교육(연수)의 중점, 방법, 형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영아교육을 위한 교사자격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아교육을 유치원에서 하려면 결국 영아를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졸업할 때 영아 대상 보육교사와 유아교육교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아예 보육 선택학점을 따지 않아 그냥 유아교사 자격증만 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아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영아를 돌보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24-나-5-참석자M-1)

유아교육교사의 경우, 0~2세의 발달 특징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봤는데, 이론과 현실은 다른 부분이 많아요. 만일 우리가 영아를 돌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영아의 발달특성과 그에 맞는 상호작용과 같은 부분이 교육이 되어야 해요. 어떤 교사가 아이를 맡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24-나-5-참석자L-1)

유아교사들은 일전에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임용고시 공부도 했고,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그게 교사의 성장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실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자격이나 역량에 따라 그 과정이 세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4-나-5-참석자S-1)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 연수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하는 교사의 의·직무 점수 같은 것들. 아니면 방학 동안 연수를 받아 2급에서 1급으로 자격을 높여주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연수를 통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24-나-5-참석자T-1)

학기 중에 운영한다면, 수업시간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외의 근무시간은 분명히 다르니까, 13시 이후에 연수를 진행하며 출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마다 일정 시간 동안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24-나-5-참석자-1)

바.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정책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현황과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지역소멸 등의 이슈는 영아교육정책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다수 도출되었다. 전북은 소인수 학급이 많고, 이로 인해 혼합연령반이 많아 교육활동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전북의 지역적 특성 중 하나로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유치원 차원에서 대처와 해결의 한계가 많아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이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는 상황임이 강조되었다.

어떤 유치원은 영아까지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립유치원이 더 적극적으로 확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 중에서도 인구가 소멸 중인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확장을 시작할 거예요. 유치원이 폐원할 위기에 처하면 원장님이나 원감님의 주도로 지역사회와 함께 영아까지 기준을 확장해서 인원을 확보하여 기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전북지역에서요. (24-나-0-참석자P-1)

저희 유치원도 지금 존폐위기거든요. 올해 저희 유치원에서 9명이 졸업을 하면 학생 수가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는데, 의외로 만 2세 영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만 2세도 받아주느냐. 단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소규모의 유치원은 만 2세를 받지 않으면 내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유보통합이 되면 정말 많은 영아를 받게 되지 않겠냐는 말도 하고……. (24-나-0-참석자T-1)

전북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없다 보니 혼합연령반이 많아요. 현재도 3~5세를 통합으로 운영하며 겪는 교육적 어려움이 있는데, 영유아 통합교육과정이 도입된다면 운영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4-나-0-참석자Q-1)

저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전북지역으로 왔는데, 여기 오고 가장 놀랐던 게 혼합연령으로 한 학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 지역에서 3년 동안 근무했을 때는 한 학급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거의 없었는데, 유치원을 통틀어 반이 딱 1개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영아교육과정이 함께 운영된다고 한다면, 환경도 모두 바뀌어야 할 것 같고 인력 지원도 절실할 것 같습니다. (24-나-0-참석자R-1)

다문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도 시골 가면 다문화가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여기서 언어투입을 통해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전북은 영아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다문화 언어 발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해요. (24-나-0-참석자S-1)

전북은 단설보다 병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시설과 상황에서 원활하게 영아의 보육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있긴 한가, 싶기도 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에 대

한 양육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24-나-0-참석자R-1)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 다시 배운 거잖아요. 나라별로 문화가 다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지가 저는 참 고민이더라고요.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특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24-나-0-참석자M-1)

저희 당장 내년에 외국인 자녀 아이가 와요. 바로 옆의 유치원은 파키스탄 아이가 와요. 그 옆의 유치원은 시리아의 아이가 오고요. 그런데 다들 한국어를 못해요.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인도 등 국가가 너무 다양해서 현장은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죠. 유치원에서만 책임질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해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조해야죠. (24-나-0-참석자L-1)

‘다꿈’이라고 해서 군산에서 다문화정책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군산시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어요. 군산시청 내부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랑 저희 유치원이랑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문화가정의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언어 수업도 해주시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의 취업도 도와주실 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러 유치원에 와주세요. 만약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유치원에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24-나-0-참석자S-1)

다문화교육에서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부모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가 이제 이곳을 자신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도 배우고 싶어 하는 부모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24-나-0-참석자R-1)

7. FGI 분석의 결론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 10명과 유치원 소속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집단초점면담(FGI)을 실시하였다. 영유아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각 집단 내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의견 교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 쟁점과 논의할 사항, 집단별 대립되는 주장과 의견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추후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였다. FGI 실시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은 다소 인식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재의 보육과정으로 충분하다는 양분된 시각이 존재하였다.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영아 대상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영아를 보육과 교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인식 차이와 연결되

어 있었다. 두 전문가 집단은 모두 영아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수립된다면, 그 과정에서 기존의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시여기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은 기존 표준보육과정이 이미 교육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표준보육과정의 긍정적인 면을 반영하되, 현실과 괴리가 큰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영아 교육과정의 인식과 필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영아교육과 관련된 교사 자격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는 교유과정 수립과 운영과도 연계되어 토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결론 부분에서 재차 언급하기로 하였다.

둘째, 영아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영아 교육과정의 비전, 목적, 운영 중점, 교원역량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현장 전문가들인 어린이집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은 교육학적 입장을 취하면서 매우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우선, 영유아의 경우 발달과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영아의 경우는 연령별 교육과정이 아닌 개월수에 따른 매우 세심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영아 시기에는 신체발달과 건강, 감각과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기본생활방법 및 습관 형성, 인지 및 창의성 등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 요건들이 갖춰지는 시기임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교육과정의 비전과 목적 등은 FGI 이후 설문내용에 반영되어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셋째, 영아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의 방향인 유보통합과 연계하여 교원 자격에 대한 내용이 지속 거론되었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두 집단 모두 영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교원 자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 내용이 아님에도 영아 대상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 자격의 안정적 인정,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교원 자격에 대한 다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는 주장과 함께, 유보통합이 되면 현재의 보육교사 자격과 유아교육교사의 자격이 어떻게 통합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보통합 이후, 단일된 하나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영아 전담, 유아 전담, 영유아 통합전담의 세 형태로 자격을 분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두 형태의 자격 과정을 모두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고,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는 현재의 자격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하였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지지하는 방향은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경우, 교육의 질을 위해 교사 자격의 기준을 높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원격 교육 형태보다는 대면 형태의 제대로 된 교사 자격

보수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기준에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보수과정의 형태와 질이 달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즉,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새롭게 도입되는 교사 자격은 높은 수준의 교사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교사 대상의 교육은 이론 중심보다 현장과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였다. 또한 교육의 가장 중점적 부분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영아 개인의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육방안이나 대처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점이 있었다.

넷째, 영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교육현장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영아의 경우는 무엇보다 교사 1인당 영아수의 감축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였는데, 특히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영아들의 발달 특성에 따라 교사 1인당 영아의 수를 줄이거나 보조인력 투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두 집단에서 모두 제기되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나 장애가 있는 영아가 있을 경우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며, 이 경우 봉사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아나 유아의 경우는 특수교육대상자나 인지·정서적 장애의 특성을 보일지라도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진단을 거부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검사와 진단을 받지 않을지라도 발달상 특성이 강한 영아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관의 교사 요청에 따른 의무적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보조인력의 지원, 특수한 형태의 학급 등이 개설될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아를 위한 교육환경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영아를 수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환경정비와 시설 개선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 소규모 형태의 한 개 학급 형태의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실과 교실 한 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꼭 확보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영아 전담 인력의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은 영아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운영되기 위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다섯째, 영아 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7개 어린이집 분과에 따른 차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현 정책방향이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유치원의 예산 지원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 지원이 영유아의 교육의 질과 교육의 평등성을 위배한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혼합연령반 운영과 관련하여, 혼합연령반이 영아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발달 상 차이가 큰 영유아들의 상

호 교류나 활동의 제약이 많아 혼합연령반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소멸과 인구 감소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져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현장에서 혼합연령반 운영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규모 기관의 차량 운영에 따른 소규모 기관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대규모 기관의 차량 운행은 소규모 영세 기관들의 폐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영아들의 경우는 흔들리는 차량이 신체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영아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도 정작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부모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국가가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지급할 때, 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 부모로서의 기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참여 전문가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여섯째,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한 영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영아 대상 교육 정책이 요구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소멸 예정 지역이 많아 영유아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유지 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사라진 농산어촌 지역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환경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지역소멸이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관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에게 영유아의 보육과 돌봄을 맡길 수 있는 환경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되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문화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일부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모들에 대한 소통방안 마련, 부모 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에 정착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언어적 어려움을 가진 이러한 부모들과의 소통과 교육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어 현장에서 매우 많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가정을 영유아 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설문조사 실시·분석

1. 설문조사 구성
2.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분석 결과
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응답 분석 결과

IV. 설문조사 실시·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아교육과정 및 영아 교육정책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영아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자격 및 자질,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 영아교육 정책이라는 6가지 범주에 따라 구성하였다. 설문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관련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되었다.

1. 설문조사 구성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참여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12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4개,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8개,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사의 자격 및 자질을 묻는 문항 11개,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항 4개, 영아교육 정책 관련 문항 9개로 이루어졌다. 해당 문항들을 문헌 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안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조사의 전체 문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2.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분석 결과

가.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1) 성별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732명 중 남자는 51명(2.9%), 여자는 1,680명(97.0%)으로 나타났다.

<표 IV-1> 설문 참여자 성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자	51	2.9
여자	1,680	97.0
무응답	1	0.1
전체	1,732	100.0

2) 연령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732명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607명(35.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494명(28.5%), 30대 381명(22.0%), 20대 144명(8.3%), 60대 59명(3.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설문 참여자 연령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대	144	8.3
30대	381	22.0
40대	607	35.0
50대	494	28.5
60대	59	3.4
무응답	47	2.7
전체	1,732	100.0

3) 직업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732명 중 원장을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해당 분야 교사이면서 학부모인 사람이 145명(8.4%)이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는 138명(8.0%), 영유아관련 기관 종사자는 67명(3.8%), 초등 미만의 자녀가 없는 일반시민은 16명(0.9%)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영유아관련 기관 종사자는 1,566명이었다.

<표 IV-3> 설문 참여자 직업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영유아 보육및교육 분야, 원장 포함)	1,352	78.1
학부모(영유아 자녀 양육자)	138	8.0
교사이면서 학부모	145	8.4
일반시민(초등 미만 자녀 없음)	16	0.9
영유아 관련기관 종사자	67	3.9
기타	13	0.8
무응답	1	0.1
전체	1,732	100.0

4) 학력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732명 중 전문대학 졸업자가 764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661명(38.2%), 석사 졸업자는 156명(9.0%), 고등학교 졸업자 102명(5.9%)으로 나타났다.

<표 IV-4> 설문 참여자 학력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고등학교 중퇴 이하	3	0.2
고등학교 졸업	102	5.9
전문대학 졸업	764	44.1
4년제 대학 졸업	661	38.2
석사 졸업	156	9.0
박사 수료 이상	41	2.4
무응답	5	0.3
전체	1,732	100.0

5) 전공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인 1,627명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이 799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복지 포함)이 262명(16.1%)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5> 설문 참여자 전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교육	799	49.1
보육	95	5.8
아동학(복지 포함)	262	16.1
사회복지	135	8.3
교육학	57	3.5
보육교사 양성 과정	75	4.6
기타	197	12.1
무응답	7	0.4
전체	1,627	100.0

6) 거주 지역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732명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거주자가 1,692명(9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16명(0.9%), 충청남도 6명(0.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V-6> 설문 참여자 거주 지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라북도	1,692	97.7
전라남도	16	0.9
충청남도	6	0.3
충청북도	1	0.1
서울	1	0.1
기타	1	0.1
무응답	15	0.9
전체	1,732	100.0

7) 영유아 자녀 재원 기관의 종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영유아 자녀의 재원 기관에 표기한 사람들 중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9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은 69명(13.9%)이었으며, 영어학원, 공부방 등은 49명(9.7%)으로 나타났다.

<표 IV-7> 영유아 자녀 재원 기관의 종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143	28.2
	직장어린이집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04	20.5
	민간어린이집	103	20.3
	가정어린이집	35	6.9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4	0.8
	합계	389	76.7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22	4.3
	사립유치원	47	9.3
	합계	69	13.6
기타	영어학원, 공부방 등	49	9.7
	전체	507	100.0

8)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영유아) 연령

설문 응답자 중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문항에 답한 사람은 총 346명이었다. 이중 0세 영아를 양육중인 가정이 77명(22.2%), 1세 영아를 양육중인 가정이 69명(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평균 연령은 2.14세였다.

<표 IV-8> 영유아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영유아) 연령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만 0세	77	22.2
만 1세	69	19.9
만 2세	58	16.7
만 3세	55	15.8
만 4세	43	12.4
만 5세	44	12.7
전체	346	100.0

나.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다음은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설문 참여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상세 기술하였다.

1)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시대변화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과정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1명 중 1,501명(87.3%)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41점을 보여 영아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9>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5	1.5
그렇지 않다	45	2.6
보통이다	150	8.7
그렇다	476	27.7
매우 그렇다	1,025	59.6
합계	1,721	100.0

2)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 정도로 충분

“영아교육과정은 현재의 표준보육과정을 개선 및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0명 중 968명(56.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46점을 나타냈다.

<표 IV-10>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 정도로 충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4	6.6
그렇지 않다	236	13.7
보통이다	407	23.4
그렇다	674	39.2
매우 그렇다	294	17.1
합계	1,720	100.0

3)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아교육과정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15명 중 791명(46.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14명(24.1%)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33점이었다.

<표 IV-11>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6	5.6
그렇지 않다	318	18.5
보통이다	510	29.7
그렇다	504	29.4
매우 그렇다	287	16.7
합계	1,715	100.0

4)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아와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은 통합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5명 중 928명(53.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96명(28.7%)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40점이었다.

<표 IV-12>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7	11.4
그렇지 않다	299	17.3
보통이다	301	17.4
그렇다	475	27.5
매우 그렇다	453	26.3
합계	1,725	100.0

다.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영아교육과정은 영아의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보다는 개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5명 중 1,275명(73.9%)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180명(10.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3점이었다.

<표 IV-13>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4	2.0
그렇지 않다	146	8.5
보통이다	270	15.7
그렇다	739	42.8
매우 그렇다	536	31.1
합계	1,725	100.0

2)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영아의 개인별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활용에 대한 교사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19명 중 1,402명(81.6%)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71명(4.2%)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07점이었다.

<표 IV-14>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2	1.3
그렇지 않다	49	2.9
보통이다	246	14.3
그렇다	866	50.4
매우 그렇다	536	31.2
합계	1,719	100.0

3)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

“영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한 후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418명(82.3%)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81명(4.7%)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11점이었다.

<표 IV-15>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1.2
그렇지 않다	60	3.5
보통이다	223	13.0
그렇다	822	47.7
매우 그렇다	596	34.6
합계	1,722	100.0

4)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영아교육과정에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5명 중 812명(47.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73명(27.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25점이었다.

<표 IV-16>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이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2	10.0
그렇지 않다	301	17.4
보통이다	440	25.5
그렇다	555	32.2
매우 그렇다	257	14.9
합계	1,725	100.0

5)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빈도 5,006건 중 정서발달은 1,362건(27.2%), 사회성발달은 1,004건(20.1%), 인지발달은 893건(17.8%), 언어발달은 765건(15.3%), 신체발달은 760건(15.2%)을 보였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설문 전체 응답자는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을 정서발달로 선택하였다.

<표 IV-17>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중복응답)

구분	빈도(건)	백분율(%)
인지발달	893	17.8
언어발달	765	15.3
신체발달	760	15.2
정서발달	1,362	27.2
사회성발달	1,004	20.1
예술성발달	208	4.2
기타	14	0.3
합계	5,006	100.0

6)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

“다음에 제시된 영아교육과정 6대 영역 중 0~2세 영아의 경우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867명(50.3%)은 “기본생활”, 272명(15.8%)은 “사회관계”, 236명(13.7%)은 “신체운동, 건강” 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8>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본 생활	867	50.3
신체운동, 건강	236	13.7
의사소통	200	11.6
사회관계	272	15.8
자연탐구	789	4.5
예술경험	50	2.9
기타	19	1.1
합계	1,722	100.0

7)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에게 강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빈도 5,313건 중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1,188건(22.4%),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794건(14.9%),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이 714건(13.4%)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설문 전체 응답자는 0~2세 영아교육과정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도록 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9> 0~2세 영아교육 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

구분	빈도(건)	백분율(%)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	573	10.8
다양한 체험 활동	357	6.7
자연 친화적인 경험	354	6.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714	13.4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	361	6.8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	794	14.9
자아를 인식, 확립할 수 있는 경험	436	8.2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272	5.1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1,188	22.4
안전 훈련	258	4.9
기타	6	0.1
합계	5,313	100.0

8)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

“영아교육과정에서 0~2세 영아의 인재상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빈도 5,827건 중 908건(15.6%)이 “건강한” 을 선택했으며, 856건(14.7%)는 “행복한” , 712건(12.2%)은 “긍정적인” 을 선택했다.

<표 IV-20>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을 둘 부분

구분	빈도(건)	백분율(%)
건강한	908	15.6
자주적인	345	5.9
창의적인	404	6.9
감성이 풍부한	353	6.1
예의바른	462	7.9
정직한	181	3.1
지혜로운	201	3.4
긍정적인	712	12.2
따뜻한	544	9.3
사회성이 있는	543	9.3
자유로운	308	5.3
행복한	856	14.7
기타	10	0.2
합계	5,827	100.0

라. 영아교육과정 운영 교사 대상 교육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교사 교육 시 영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323명 (76.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72명(4.2%)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7점이었다.

<표 IV-21>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4	1.4
그렇지 않다	48	2.8
보통이다	327	19.0
그렇다	877	50.9
매우 그렇다	446	25.9
합계	1,722	100.0

2)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관련 교사 양성 과정은 이론보다는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6명 중 1,211명 (70.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128명(7.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86점이었다.

<표 IV-22>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3	1.9
그렇지 않다	95	5.5
보통이다	387	22.4
그렇다	783	45.4
매우 그렇다	428	24.8
합계	1,726	100.0

3)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054명(61.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220명(12.8%)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65점이었다.

<표 IV-23>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7	3.9
그렇지 않다	153	8.9
보통이다	448	26.0
그렇다	696	40.4
매우 그렇다	358	20.8
합계	1,722	100.0

4)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인식

“영아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영아전담 보육교사와 유아전담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은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 및 일원화 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17명 중 964명(56.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397명(23.2%)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49점이었다.

<표 IV-24>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2	8.3
그렇지 않다	255	14.9
보통이다	356	20.7
그렇다	552	32.1
매우 그렇다	412	24.0
합계	1,717	100.0

5)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3명 중 1,442명(83.6%)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60명(3.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23점이었다.

<표 IV-25>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0.5
그렇지 않다	52	3.0
보통이다	221	12.8
그렇다	702	40.7
매우 그렇다	740	42.9
합계	1,723	100.0

6)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나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떤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빈도 3,270건 중 보조인력지원이 1,354건(41.4%)로 가장 많았으며,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가 1,112건(34.0%)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26>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

구분	빈도(건)	백분율(%)
보조인력지원	1,354	41.4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	1,112	34.0
일부 기관에 해당 학급 편성	389	11.9
특수기관의 설립	307	9.4
현행 유지	108	3.3
합계	3,270	100.0

7)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면, 양질의 보수교육(연수)이(가) 정례화되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245명(72.3%)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69명(4.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0점이었다.

<표 IV-27>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1.2
그렇지 않다	48	2.8
보통이다	408	23.7
그렇다	850	49.4
매우 그렇다	395	22.9
합계	1,722	100.0

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은(는) 현재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학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4명 중 925명(53.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431명(2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39점이었다.

<표 IV-2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1	7.6
그렇지 않다	300	17.4
보통이다	365	21.2
그렇다	626	36.3
매우 그렇다	302	17.5
합계	1,724	100.0

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은(는) 어떤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4,192건 중 지역교육청이 1,067건(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격연수기관이 927건(22.1%)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2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

구분	빈도(건)	백분율(%)
지역교육청	1,067	25.5
지역대학	797	19.0
별도 기관 신설	729	17.4
사설 기관 및 학원	672	16.0
원격연수기관	927	22.1
합계	4,192	100.0

1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어떤 형태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2,331건 중 자격연수과정이 1,040건(4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격교육형태가 797건(34.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3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

구분	빈도(건)	백분율(%)
원격교육형태	797	34.2
대학 학위(학사, 석사, 박사) 연계 과정	450	19.3
자격연수과정	1,040	44.6
기타	44	1.9
합계	2,331	100.0

11) 보수교육(연수) 기간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의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2,103건 중 1개월 집중과정이 653건(31.1%)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학기과정이 513건(24.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31> 보수교육(연수) 기간

구분	빈도(건)	백분율(%)
1개월 집중과정	653	31.1
6개월 학기 과정	513	24.4
1년 학년 과정	372	17.7
2~3년 학위 연계과정	348	16.5
4년 이상의 과정	132	6.3
기타	82	4.0
합계	2,103	100.0

마.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

“현재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 1인당 배정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3명 중 1,536명(89.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0명(2.3%)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54점이었다.

<표 IV-32>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	0.6
그렇지 않다	29	1.7
보통이다	147	8.5
그렇다	371	21.5
매우 그렇다	1,165	67.6
합계	1,723	100.0

2)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0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영아)?”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072명(62.3%)은 “교사 1명 : 영아 2명”, 544명(31.6%)은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3>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영아 4명	7	0.4
교사 1명 : 영아 3명	90	5.2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	511	31.6
교사 1명 : 영아 2명	1,072	62.3
기타	9	0.5
합계	1,722	100.0

3)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1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영아)?”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7명 중 933명(54.0%)은 “교사 1명 : 영아 3명”, 684명(39.6%)은 “교사 1명 : 영아 4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4>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영아 6명	4	0.2
교사 1명 : 영아 5명	89	5.2
교사 1명 : 영아 4명	684	39.6
교사 1명 : 영아 3명	933	54.0
기타	17	1.0
합계	1,727	100.0

4) 만 2세 유아반 교사 대 유아 비율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2세 유아의 경우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유아)?”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1명 중 836명(48.60%)은 “교사 1명 : 유아 5명”, 430명(25.0%)은 “교사 1명 : 유아 4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5> 만 2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유아 7명	80	4.6
교사 1명 : 유아 6명	358	20.8
교사 1명 : 유아 5명	836	48.6
교사 1명 : 유아 4명	430	25.0
기타	17	1.0
합계	1,721	100.0

5)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혼합연령반은 영아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5명 중 847명(49.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526명(20.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31점이었다.

<표 IV-36>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03	11.8
그렇지 않다	323	18.7
보통이다	352	20.4
그렇다	438	25.4
매우 그렇다	409	23.7
합계	1,725	100.0

6)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4명 중 689명(39.9%)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으나 617명(35.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2.96점이었다.

<표 IV-37>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35	13.6
그렇지 않다	454	26.3
보통이다	418	24.2
그렇다	375	21.8
매우 그렇다	242	14.0
합계	1,724	100.0

바. 영아교육 정책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기관 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

“영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재정 지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4명 중 1,261명(71.6%)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221명(12.8%)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2점이었다.

<표 IV-38> 기관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5	5.5
그렇지 않다	126	7.3
보통이다	269	15.6
그렇다	569	33.0
매우 그렇다	665	38.6
합계	1,724	100.0

2)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제반 비용은 다음 중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763명(44.1%)은 “국가전액부담”을 선택하였으며, 587명(34.1%)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을 선택하였다.

<표 IV-39>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국가 전액 부담	763	44.3
학부모 전액 부담	23	1.3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 부담	245	14.2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가 일부 부담	102	5.9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	587	34.1
연장반시 부모 부담	1	0.1
시에서 전액 부담	1	0.1
합계	1,722	100.0

3)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등의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3명 중 1,030명(59.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는 326명(18.9%)이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57점이었다.

<표 IV-40>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62	9.4
그렇지 않다	164	9.5
보통이다	367	21.3
그렇다	598	34.7
매우 그렇다	432	25.1
합계	1,723	100.0

4)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

“영아교육에서는 국가, 기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3명 중 1,511명(87.7%)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27명(1.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42점이었다.

<표 IV-41>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0.3
그렇지 않다	21	1.2
보통이다	185	10.7
그렇다	550	31.9
매우 그렇다	961	55.8
합계	1,723	100.0

5) 국가는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영아의 보육과 돌봄을 책임져줄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1명 중 1,265명(73.5%)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156명(9.1%)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02점이었다.

<표 IV-42> 국가는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1	3.0
그렇지 않다	105	6.1
보통이다	300	17.4
그렇다	562	32.7
매우 그렇다	703	40.8
합계	1,721	100.0

6) 부모가 보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보육과 돌봄보다는 부모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보육, 돌봄, 교육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3명 중 1,374명(79.7%)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111명(6.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18점이었다.

<표 IV-43> 부모가 교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9	2.8
그렇지 않다	62	3.6
보통이다	238	13.8
그렇다	552	32.0
매우 그렇다	822	47.7
합계	1,723	100.0

7)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중복 응답을 포함한 전체 응답 9,904건 중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돌봄(교육) 및 긴급 돌봄 지원”이 92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지연 영아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총 818건(21.0%)을 보였다. 본 문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들이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자유 기술이 가능하도록 기타 항목을 별도 부여하였으며, 아래 표는 기타 항목에 기술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것이다.

<표 IV-44>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

구분	빈도(건)	백분율(%)
도서 벽지 등을 위해 1인 영아보육 및 교육지원	287	7.4
소규모 기관의 운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770	19.7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언어발달프로그램 지원	455	11.7
대규모 기관 중심의 통폐합을 통한 등하원 지원	188	4.8
조손가정, 조부모 위탁,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영아 집중지원	453	11.6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돌봄(교육) 및 긴급돌봄 지원	929	23.8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지연 영아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등 지원	818	21.0
발달지연 영아를 위한 통합반 의무 설치	1	0.0
교사들의 학대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1	0.0
읍,면지역 및 법인어린이집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인원, 지원증대, 교사비율 하향 등)	1	0.0
경제적 지원	1	0.0
합계	3,904	100.0

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응답 분석 결과

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성별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 중 남자는 21명(1.3%), 여자는 1,544명(98.6%), 무응답은 1명(0.1%)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성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남자	21	1.3
여자	1,544	98.6
무응답	1	0.1
전체	1,566	100.0

2)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의 연령 분포를 분석한 결과, 40대가 558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481명(30.7%), 30대 292명(18.6%), 20대 136명(8.7%), 60대 58명(3.7%) 순서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V-46>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연령 분포

구분	빈도(명)	백분율(%)
20대	136	8.7
30대	292	18.6
40대	558	35.6
50대	481	30.7
60대	58	3.7
무응답	41	2.6
전체	1,566	100.0

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력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의 중 전문대학 졸업자가 732명(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579명(37.1%), 석사 졸업자는 136명(8.7%), 고등학교

졸업자는 82명(5.2%)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학력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고등학교 중퇴 이하	2	0.1
고등학교 졸업	82	5.2
전문대학 졸업	732	46.7
4년제 대학 졸업	579	37.0
석사 졸업	136	8.7
박사 수료 이상	31	2.0
무응답	4	0.3
전체	1,566	100.0

5)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전공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의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이 786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복지 포함)이 260명(17.5%)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표 IV-48>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전공

구분	빈도(명)	백분율(%)
유아교육	786	53.0
보육	93	6.2
아동학(복지 포함)	260	17.5
사회복지	122	8.2
교육학	36	2.4
보육교사 양성 과정	73	4.9
기타	112	7.5
전체	1,482	100.0

6)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거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6명의 거주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거주자가 1,533명(9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12명(0.8%), 충청남도 5명(0.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IV-4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거주 지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라북도	1,533	97.9
전라남도	12	0.8
충청남도	5	0.3
충청북도	0	0
서울	1	0.1
기타	1	0.1
무응답	14	0.9
전체	1,566	100.0

7)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근무 기관 종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근무 기관 종류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종사자가 1,532명(97.7%)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종사자는 8명(0.6%)이었으며, 영어학원과 공부방 등 기타 기관 종사자는 26명(1.7%)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근무 기관 종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595	38.0
	직장어린이집	10	0.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87	18.3
	민간어린이집	373	23.8
	가정어린이집	259	16.5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8	0.5
	합계	1,532	97.7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4	0.3
	사립유치원	4	0.3
	합계	8	0.6
기타	영어학원, 공부방 등	26	1.7
전체	1,566	100.0	

8)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최종 보유 자격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566명의 최종 보유 자격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163명(74.4%)이었으며,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378명(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최종 보유 자격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보육 교사	1급 보육교사	613	39.2
	2급 보육교사	115	7.4
	3급 보육교사	6	0.4
	어린이집 원장	429	27.4
	합계	1,163	74.4
유치원 교사	2급 유치원 정교사	202	12.9
	1급 유치원 정교사	73	4.7
	유치원 원감	2	0.1
	유치원 원장	101	6.5
	합계	378	24.2
기타	기타	22	1.4
무응답	무응답	3	0.2
전체		1,566	100.0

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경력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566명의 영유아 보육 업무 수행 경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경력은 4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에서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752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표 IV-52>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경력

구분	빈도(명)	백분율(%)
1년 미만	10	0.6
1년 이상 3년 미만	83	5.3
3년 이상 5년 미만	105	6.7
5년 이상 10년 미만	356	22.7
10년 이상 20년 미만	752	48.0
20년 이상	216	13.8
무응답	44	2.8
전체	1,566	100.0

1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전담 영유아반의 연령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중 자신이 맡고 있는 영유아반의 연령을 기입하도록 한 문항에 응답한 1,257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단일한 연령으로 구성된 영유아반을 전담하는 종사자가 1,071명(85.1%)을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도 0세반이 331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분포가 다양한 통합반을 전담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는 1,257명의 응답자 중 187명(14.9%)이었으며, 1-2세 통합반이 35명(2.8%)으로 통합반 중 가장 많았다.

<표 IV-53>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전담 영유아반의 연령

반 종류	영유아 연령	빈도(명)	백분율(%)
단일반	0세반	331	26.3
	1세반	267	21.2
	2세반	241	19.2
	3세반	86	6.8
	4세반	87	6.9
	5세반	59	4.7
	합계	1,071	85.1
통합반	0-1세 통합반	32	2.5
	0-2세 통합반	20	1.6
	0-3세 통합반	3	0.2
	0-4세 통합반	1	0.1
	0-5세 통합반	22	1.8
	1-2세 통합반	35	2.8
	1-3세 통합반	3	0.2
	1-4세 통합반	1	0.1
	1-5세 통합반	3	0.2
	2-3세 통합반	2	0.2
	2-4세 통합반	1	0.1
	3-4세 통합반	16	1.3
	3-5세 통합반	26	2.1
	4-5세 통합반	21	1.7
합계	186	14.9	
전체		1,257	100.0

나.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다음은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가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각 문항별로 응답 내용을 상세 기술하였다.

1) 영아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시대변화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과정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8명 중 1,361명(86.9%)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42점을 보여 영아교육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표 IV-54>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1.3
그렇지 않다	38	2.4
보통이다	138	8.9
그렇다	431	27.7
매우 그렇다	930	59.7
합계	1,558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42, 유치원 종사자 평균=4.75),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39, 유치원 정교사 평균=4.48)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은 현재의 표준보육과정을 개선 및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8명 중 900명(57.7%)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300명(19.3%)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51점을 나타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5>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0	5.8
그렇지 않다	210	13.5
보통이다	358	23.0
그렇다	622	39.9
매우 그렇다	278	17.8
합계	1,558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3.51, 유치원 종사자=3.38),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육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3.28,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유치원 정교사 집단에 비해 영아교육과정은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56>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i>t</i>	<i>p</i>
보육 교사	1,147	3.55	1.08	3.38	<.001
유치원 정교사	368	3.33	1.17		

3)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2명 중 699명(45.0%)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387명(24.9%)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30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7>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3	6.0
그렇지 않다	294	18.9
보통이다	466	30.0
그렇다	455	29.3
매우 그렇다	244	15.7
합계	1,552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29, 유치원 종사자 평균=3.63),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26, 유치원 정교사=3.37)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와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은 통합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2명 중 864명(55.4%)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21명(27.0%)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44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58> 영아,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0	10.9
그렇지 않다	251	16.1
보통이다	277	17.7
그렇다	446	28.6
매우 그렇다	418	26.8
합계	1,562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44, 유치원 종사자 평균=2.75),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40, 유치원 정교사 평균=3.5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교육과정 주요 내용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정도

“영아교육과정은 영아의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보다는 개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1명 중 1,128명(72.3%)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172명(11.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88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표 IV-5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인식 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2	2.0
그렇지 않다	140	9.0
보통이다	261	16.7
그렇다	679	43.5
매우 그렇다	449	28.8
합계	1,561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88, 유치원 종사자 평균=3.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84, 유치원 정교사 평균=3.89)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영아의 개인별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활용에 대한 교사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5명 중 1,252명(80.6%)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67명(4.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03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표 IV-6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 발달 수준 측정 척도에 대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1.4
그렇지 않다	46	3.0
보통이다	236	15.2
그렇다	808	52.0
매우 그렇다	444	28.6
합계	1,555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03, 유치원 종사자 평균=4.13),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01, 유치원 정교사 평균=4.1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한 후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중 1,559명 중 1,278명(82.0%)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71명(4.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09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1> 발달 수준에 따른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	1.2
그렇지 않다	52	3.3
보통이다	210	13.5
그렇다	771	49.5
매우 그렇다	507	32.5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08, 유치원 종사자 평균=4.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06, 유치원 교사 평균=4.1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중 1,561명 중 751명(48.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03명(25.8%)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28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2>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 도입이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1	8.4
그렇지 않다	272	17.4
보통이다	407	26.1
그렇다	526	33.7
매우 그렇다	225	14.4
합계	1,561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28, 유치원 종사자 평균=2.7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27, 유치원 정교사 평균=3.32)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5)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의 중복 응답 4,493건 중 1,226건(27.3%)이 “정서발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 순으로는 “사회성발달”이 916건(20.4%)으로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비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표 IV-63>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인지발달	785	17.5
언어발달	689	15.3
신체발달	673	15.0
정서발달	1,226	27.3
사회성발달	916	20.4
예술성발달	192	4.3
기타	12	0.3
합계	4,493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다음에 제시된 영아교육과정 6대 영역 중 0~2세 영아의 경우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2명 중 798명(51.1%)은 “기본생활”, 255명(16.3%)은 “사회관계”, 204명(13.1%)은 “신체운동, 건강”이라고 응답하는 등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4>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본 생활	798	51.1
신체운동, 건강	204	13.1
의사소통	178	11.4
사회관계	255	16.3
자연탐구	63	4.0
예술경험	45	2.9
기타	19	1.2
합계	1,562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 0~2세 영아교육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에게 강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의 중복 응답 5,034건 중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1,075건(21.4%),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742건(14.7%),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이 644건(12.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비율과 유사하다.

<표 IV-65> 0~2세 영아교육 과정 중 강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	536	10.6
다양한 체험 활동	317	6.3
자연 친화적인 경험	312	6.2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644	12.8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	320	6.4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	742	14.7
자아를 인식, 확립할 수 있는 경험	381	7.6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246	4.9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1,075	21.4
안전 훈련	456	9.1
기타	5	0.1
합계	5,034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8)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에게 강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의 중복 응답 5,316건 중 중 822건(15.5%)이 “건강한” 을 선택했으며, 774건(14.6%)은 “행복한” , 646건(12.2%)은 “긍정적인” 을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표 IV-66> 0~2세 영아교육과정의 인재상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건강한	822	15.5
자주적인	315	5.9
창의적인	376	7.1
감성이 풍부한	310	5.8
예의바른	434	8.2
정직한	166	3.1
지혜로운	186	3.5
긍정적인	646	12.2
따뜻한	489	9.2
사회성이 있는	511	9.6
자유로운	278	5.2
행복한	774	14.6
기타	9	0.2
합계	5,316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라.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교육과정 운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교사 교육 시 영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184명(75.9%)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68명(4.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3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7> 영아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 보강의 필요성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3	1.5
그렇지 않다	45	2.9
보통이다	307	19.7
그렇다	822	52.7
매우 그렇다	362	23.2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93, 유치원 종사자 평균=4.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90, 유치원 정교사 평균=4.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관련 교사 양성 과정은 이론보다는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2명 중 1,070명(68.6%)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125명(8.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81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

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8>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3	2.1
그렇지 않다	92	5.9
보통이다	367	23.5
그렇다	724	46.4
매우 그렇다	346	22.2
합계	1,562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79, 유치원 종사자 평균=4.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78, 유치원 정교사 평균=3.85)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921명(59.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213명(13.7%)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60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9>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5	4.2
그렇지 않다	148	9.5
보통이다	425	27.3
그렇다	636	40.8
매우 그렇다	285	18.3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95, 유치원 종사자=4.00),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6.34$, $p<.001$)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교원 자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0>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p
보육 교사	1,148	3.49	1.02	-6.24	<.001
유치원 정교사	368	3.88	0.98		

4)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영아전담 보육교사와 유아전담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은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 및 일원화 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4명 중 897명(57.7%)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327명(21.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53점으로 설문 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의 통합 및 일원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4	7.3
그렇지 않다	213	13.7
보통이다	330	21.2
그렇다	526	33.8
매우 그렇다	371	23.9
합계	1,554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53, 유치원 종사자 평균=3.13),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

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54, 유치원 종사자 평균=3.50)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303명(83.5%)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56명(3.6%)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22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2>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	5
그렇지 않다	48	3.1
보통이다	200	12.8
그렇다	643	41.2
매우 그렇다	660	42.3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21 유치원 종사자 평균=4.63),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2.57, p<.01$)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3>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p
보육 교사	1,147	4.19	.02	-2.57	.010
유치원 정교사	369	4.31	.04		

6)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나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떤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선택 가능)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중복 응답 2,940건 중 1,240건(42.2%)은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는 999건(34.0%)으로 다음을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표 IV-74>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보조인력지원	1,240	42.2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	999	34.0
일부 기관에 해당 학급 편성	345	11.7
특수기관의 설립	263	8.9
현행 유지	93	3.2
합계	2,940	100.0

7)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면, 양질의 보수교육(연수)이 정례화되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8명 중 1,109명(71.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67명(4.3%)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86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5>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1.3
그렇지 않다	46	3.0
보통이다	382	24.5
그렇다	784	50.3
매우 그렇다	325	20.9
합계	1,558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86 유치원 종사자 평균=4.00),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1.96, p<.05$)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보수교육(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6>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i>t</i>	<i>p</i>
보육 교사	1,146	3.83	.02	-1.96	.050
유치원 정교사	370	3.93	.04		

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현재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학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0명 중 813명(52.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11명(26.4%)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34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77>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9	8.3
그렇지 않다	282	18.1
보통이다	336	21.5
그렇다	555	35.6
매우 그렇다	258	16.5
합계	1,560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34, 유치원 종사자 평균=2.7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8.42, p<.001$)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에 대한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p
보육 교사	1,147	3.19	1.19	-8.42	<.001
유치원 정교사	370	3.78	1.09		

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어떤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선택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중복 응답 3,772건 중 지역교육청이 944건(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격연수기관이 882건(23.4%)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표 IV-79>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지역교육청	944	25.0
지역대학	698	18.5
별도 기관 신설	643	17.0
사설 기관 및 학원	605	16.0
원격연수기관	882	23.4
합계	3,772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어떤 형태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중복 응답 2,100건 중 자격연수과정이 912건(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격교육형태가 764건(36.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유사하다.

<표 IV-80> 보수교육(연수) 과정의 형태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원격교육형태	764	36.4
대학 학위(학사, 석사, 박사) 연계 과정	386	18.4
자격연수과정	912	43.4
기타	38	1.8
합계	2,100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11) 보수교육(연수) 기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만약 영유아 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의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문항(중복 응답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중복 응답 1,876건 중 1개월 집중 과정이 629건(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학기과정이 461건(24.6%)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표 IV-81> 보수교육(연수) 기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1개월 집중과정	629	33.5
6개월 학기 과정	461	24.6
1년 학년 과정	305	16.3
2~3년 학위 연계과정	288	15.4
4년 이상의 과정	112	6.0
기타	81	4.3
합계	1,876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현재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 1인당 배정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401명(89.9%)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31명(2.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56점이었다.

<표 IV-82> 교사 1인당 영아 수 감축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9	0.6
그렇지 않다	22	1.4
보통이다	127	8.1
그렇다	326	20.9
매우 그렇다	1,075	69.0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56, 유치원 종사자 평균=4.50),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58, 유치원 정교사=4.53)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0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영아)?”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011명(64.8%)은 “교사 1명 : 영아 2명”, 466명(34.8%)은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등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3> 만 0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영아 4명	5	0.3
교사 1명 : 영아 3명	72	4.6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	466	29.9
교사 1명 : 영아 2명	1,011	64.8
기타	5	0.3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해 이들 집단 간의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1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영아)?”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3명 중 817명(52.3%)은 “교사 1명 : 영아 3명”, 648명(41.5%)은 “교사 1명 : 영아 4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4> 만 1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영아 6명	3	0.2
교사 1명 : 영아 5명	85	5.4
교사 1명 : 영아 4명	648	41.5
교사 1명 : 영아 3명	817	52.3
기타	10	0.6
합계	1,563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해 이들 집단 간의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만 2세 유아반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2세 유아의 경우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교사 : 유아)?**”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7명 중 793명(50.9%)은 “교사 1명 : 유아 5명”, 341명(21.9%)은 “교사 1명 : 유아 6명”, 335명(21.5%)은 “교사1명 : 유아 4명”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5> 만 2세 영아반 교사 대 영아 비율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사 1명 : 유아 7명	77	4.9
교사 1명 : 유아 6명	341	21.9
교사 1명 : 유아 5명	793	50.9
교사 1명 : 유아 4명	335	21.5
기타	11	0.7
합계	1,557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해 이들 집단 간의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혼합연령반은 영아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1명 중 749명(47.9%)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493명(31.6%)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27점으로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6> 혼합연령반의 철폐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2	12.3
그렇지 않다	301	19.3
보통이다	319	20.4
그렇다	394	25.2
매우 그렇다	355	22.7
합계	1,561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26 유치원 종사자 평균=3.50),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22, 유치원 정교사=3.37)에서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1명 중 601명(38.5%)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으나 585명(37.4%)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01점으로 전체 설문참여자의 응답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7>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00	12.8
그렇지 않다	401	25.7
보통이다	375	24.0
그렇다	358	22.9
매우 그렇다	227	14.5
합계	1,561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00, 유치원 종사자 평균=3.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t=-2.68, p<.01$)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88>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보육 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집단의 인식 차이 분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p
보육 교사	1,149	2.96	1.25	-2.68	.007
유치원 정교사	369	3.16	1.26		

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영아교육 정책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1) 기관 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재정 지원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60명 중 1,122명(72.0%)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며, 187명(12.0%)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94점으로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89> 기관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재정 지원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80	5.1
그렇지 않다	107	6.9
보통이다	251	16.1
그렇다	508	32.6
매우 그렇다	614	39.4
합계	1,560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94, 유치원 종사자 평균=4.2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91, 유치원 정교사=4.04)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제반 비용은 다음 중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691명(44.3%)은 “국가전액부담” 을 선택하였으며, 525명(33.7%)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 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전체 설문 응답자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IV-90>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의 주요 부담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국가 전액 부담	691	44.3
학부모 전액 부담	21	1.3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 부담	222	14.2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가 일부 부담	98	6.3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	525	33.7
연장반시 부모 부담	1	0.1
시에서 전액 부담	1	0.1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해 이들 집단 간의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항목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등의 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901명(57.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에는 317명(20.3%)이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3.50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91>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시스템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8	10.1
그렇지 않다	159	10.2
보통이다	341	21.9
그렇다	551	35.3
매우 그렇다	350	22.5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3.49, 유치원 종사자 평균=3.00),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51, 유치원 정교사=3.47)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영아교육에서는 국가, 기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375명(87.2%)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20명(1.3%)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43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92>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0.4
그렇지 않다	14	0.9
보통이다	164	10.5
그렇다	492	31.6
매우 그렇다	883	56.6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43, 유치원 종사자 평균=4.75),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42, 유치원 정교사=4.45)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영아의 보육과 돌봄을 책임져줄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7명 중 1,133명(72.8%)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142명(9.2%)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01점으로 전체 설문 참여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93> 영아 보육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3	2.8
그렇지 않다	99	6.4
보통이다	282	18.1
그렇다	515	33.1
매우 그렇다	618	39.7
합계	1,557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00, 유치원 종사자 평균=4.38),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3.99, 유치원 정교사=4.04)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부모가 보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보육과 돌봄보다는 부모가 영유아와 아동

에 대한 보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응답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1,559명 중 1,223명(78.4%)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나 107명(6.8%)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평균은 4.14점으로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94> 부모가 교육, 돌봄,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7	3.0
그렇지 않다	60	3.8
보통이다	229	14.7
그렇다	516	33.1
매우 그렇다	707	45.3
합계	1,55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에 대한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어린이집 종사자 평균=4.14, 유치원 종사자 평균=4.63),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보육교사 평균=4.12, 유치원 정교사=4.20)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라는 문항(중복 선택 가능)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중복 응답 3,519건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돌봄(교육) 및 긴급돌봄 지원”이 812건(2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지연 영아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총 757건(21.5%)이었다. 본 문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자유 기술이 가능하도록 기타 항목을 별도 부여하였으며, 아래 표는 기타 항목에 응답자가 자발

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것이다.

<표 IV-95>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 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

구분	빈도(건)	백분율(%)
도서 벽지 등을 위해 1인 영아보육 및 교육지원	257	7.3
소규모 기관의 운영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717	20.4
다문화 영유아를 위한 언어발달프로그램 지원	417	11.8
대규모 기관 중심의 통폐합을 통한 등하원 지원	160	4.5
조손가정, 조부모 위탁,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영아 집중지원	398	11.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돌봄(교육) 및 긴급돌봄 지원	812	23.1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지연 영아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등 지원	757	21.5
읍,면지역 및 법인어린이집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인원, 지원증대, 교사비율 하향 등)	1	0.0
합계	3,519	100.0

한편, 어린이집 종사자와 유치원 종사자를 구분한 후 해당 문항 응답에 대한 집단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라는 이들이 소유한 최종 보유 자격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결론 및 논의
2. 연구의 제언

V. 결론 및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의해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결론에 따른 논의와 연구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토대가 되는 영아기(0세~2세)의 중요성, 영아에 대한 육아의 어려움이 출산 기피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이 정책적으로 결합되고 있는 맥락 등의 필요성에 따라,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전반에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육정책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내용을 도출함은 물론, 연구 발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요구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는 영아에 대한 보육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 기간 연장, 사회참여 증가, 가정의 양육 기능의 약화, 개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서문희, 2013; 이승연, 유주연, 2014)에 따라 영아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과 영아를 제외하고 유아 대상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온 유치원 간의 통합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입무연, 2023).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돌봄과 보육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영아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영아 교육정책에 대해 탐색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영아 대상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영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아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FGI(초점집단면담),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장을 구성하였으며, 연구의 결론과 논의 역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문헌 연구

문헌 연구는 표준보육과정의 개념 및 의미, 1차부터 4차까지의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문헌 연구 결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보육과정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복지의 개념이 확장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유보통합에 따라 영아에 대한 보육의 개념이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영아를 보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아를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나,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영아는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Gopnik, 2009), 영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본 연구의 출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오면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차 표준보육과정은 그 전의 표준보육과정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성을 강조하고, 탐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을 중시여기고 있으며, 예술 경험의 표현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4차 표준보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제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유보통합은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 예산 사용과 부모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1).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교육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서 운영되는 통합 교육과정으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5개 영역의 교육 목표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유아교육과정 전반을 영아 대상의 표준보육과정과 유아 대상의 누리과정의 체계로 보는 관점(김경철, 김운지, 2023)이 있으며, 이는 유아와 같이 영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된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유보통합을 통해서 기존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 0~2세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보육·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2024.6.27.)에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중 하나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이경화, 202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 다양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에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영유아교육과정은 유보통합에 따른 누리과정 연계 차원에서 개편(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존 6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 표준보육과정을 누리 과정에 맞춰 5개 영역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이 수립된 것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누리과정의 적용과정에서도 도출된 바,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내용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교사 연수 등의 구체적인 교육적 접근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즉, 신체발달 및 인지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영유아(0~2세) 시기별로 체계적·구체적인 교육적 접근이 이뤄짐으로써, 영유아로 하여금 최적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의 교육적 적용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의 개발 및 교사연수 등이 병행되어 영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FGI(초점집단면담)

FGI(초점집단면담)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참여자들이 집단 내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끌어내는 연구방법(Morgan, 2007)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육의 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전문가로 섭외하고자 하였으며(윤정진, 임홍남, 2023), 다양한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 도출되고, 저경력 교사들이 상상하는 미래의 교육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은 모두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형 영아교육과정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교사 20명을 선정하였다.

현직 어린이집 교사 및 유치원 교사 총 20명 대상, 두 개의 집단별 FGI를 실시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주요 수집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집단별 FGI는 2024년 10월 중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1회와 2024년 11월 중 실시한 집중면담 1회로 진행되었다. FGI 오리엔테이션은 집단별로 40분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 내 강의실에서 연구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연구참여자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전 면담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실제 집중면담에서 심도 있는 의견과 이야기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면담 질문은 대학 교수인 세 연구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2인의 전문가(대학교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였다.

FGI 실시 및 분석 결과, 어린이집 교사 집단과 유치원 교사 집단은 영아교육과정과 영아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는데,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는

‘현장에는 이미 존재하는 영아교육과정’, ‘영아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영아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영아교육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저출산 대책의 필요조건인 영아교육과정’,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FGI 결과는 ‘영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엇갈린 시선’, ‘영아교육의 목표와 중점은 표준화, 연계성, 개별성에 기반한 기본교육’, ‘영아교육과정 수립·운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영아교육의 유치원 적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줄이는 영아교육정책’, ‘수준 높은 영아교육과정은 교사와 지원인력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으로부터’,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교육정책’의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두 집단의 차이점으로는 보육과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견, 표준보육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 유보통합에 따른 신분과 자격과정의 변동에 대한 의견 등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의 역할과 중점영역, 이상적 영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제시 등에서 매우 적극적이며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FGI를 통해, 영아 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는 가정하에, 영아 교육과정의 비전, 목적, 운영 중점, 교원역량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자격과정과 관련하여 영유아통합 교사 자격이 완비된다면, 그에 따른 보수교육(연수)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원격이 아닌 현장 연계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모두 동의하였다. 영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교육현장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FGI에서 논의된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영아 교육과정과 영아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장애)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전국 영아(0-2세)의 수는 588,271명이며, 전북 영아의 수는 17,556명이다. 전국의 다문화 가정 영아의 수는 34,001명이며, 전북은 1,505명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영아의 비율이 전국은 5.78%, 전북은 8.57%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다문화 가정 영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영아 교육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대상 영아 수는 1,091명이며, 전북은 35명으로, 전국은 0.19%, 전북은 0.20%로 나타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FGI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영아의 특수교육대상 판별은 성장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인식과 수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 판별이 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으로 판별이 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을 보이거나 발달이 늦는 영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다. 설문조사

연구 목적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아교육과정 및 영아 교육정책과 관련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현장전문가인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 분석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영아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자격 및 자질,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 영아교육 정책이라는 6가지 범주에 따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참여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12개,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4개,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8개, 영아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사의 자격 및 자질을 묻는 문항 11개,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항 4개, 영아교육 정책 관련 문항 9개로 이루어졌다. 해당 문항들을 문헌 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구안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제작되었다. 설문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및 관련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실시 결과, 총 1,732명 중 남자는 51명(2.9%), 여자는 1,680명(97.0%)였고, 연령분포는 40대가 607명(35.0%)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494명(28.5%), 30대 381명(22.0%), 20대 144명(8.3%), 60대 59명(3.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 1,732명 중 원장을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분야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했다. 해당 분야 교사이면서 학부모인 사람이 145명(8.4%)이었으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는 138명(8.0%), 영유아관련 기관 종사자는 67명(3.8%), 초등 미만의 자녀가 없는 일반시민은 16명(0.9%)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영유아관련 기관 종사자는 1,566명이었다. 이외에도 직업, 학력, 전공, 거주 지역, 영유아 자녀 채용 기관 종류, 영유아 자녀의 연령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대변화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과정은 필요하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1명 중 1,501명(87.3%)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아교육과정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라는 문항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15명 중 791명(46.1%)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으며, 414명(24.1%)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여, 새로운 형태의 영아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영아와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은 통합되어야 한다” 는 928명(53.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영아교육과정은 영아의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하

여 연령보다는 개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1,275명(73.9%)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영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한 후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1,418명(82.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영아교육과정에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의 긍정 응답자는 812명(47.1%)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발달(27.2%), 사회성발달(20.1%), 인지발달(17.8%), 언어발달(15.3%), 신체발달(15.2%)을 보였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도 정서발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었다. 현재 표준보육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아교육의 6대 과정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867명(50.3%)이 “기본생활”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에게 강조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빈도 5,313건 중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이 1,188건(2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를 위해 설정할 인재상”에 대해서는 908건(15.6%)이 “건강한”, 856건(14.7%)는 “행복한”, 712건(12.2%)은 “긍정적인”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교육과정의 개념적 총론적 접근을 할 경우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사 대상 교육(연수)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면,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교사 교육 시 영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에 대해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323명(76.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발달 단계에 대한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1,211명(70.2%)이 “교사 양성 과정은 이론보다는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1,054명(61.2%)가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영아전담 보육교사와 유아전담 유치원교사 자격 과정은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 및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긍정답변이 964명(56.1%)였고, 부정적 응답이 397명(23.2%)였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하다”에서는 1,442명(83.6%)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특수교육대상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나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영유아가 있는 경우, 지원 형태”에 대해서는 3,270건 중 보조인력지원이 1,354건(41.4%)로 가장 많았으며,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가 1,112건(34.0%)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 1,722명 중 1,245명(72.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자 1,724명 중 925명(53.8%)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보수교육(연수)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25.5%), 원격연수기관(22.1%), 지역대학(19.0%), 별도 기관 신설(17.4%), 사설 기관 및 학원(16.0%)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격연수과정(44.6%), 원격교육형태(34.2%), 대학 학위(학사, 석사, 박사) 연

계 과정(19.3%)로 나타났다. 또한 보수교육(연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집중과정인 653건(31.1%)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학기과정이 513건(24.2%)으로 다음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연수) 담당기관과 보수교육(연수)과정의 형태에 대해 FGI에 참여한 모든 현장 전문가들은 원격교육기관과 원격교육형태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내용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익명성과 탈억제성에 따른 반응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영아교육과정의 현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 1인당 배정하는 영유아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에 1,536명(8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 0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에 대해, 1,072명(62.3%)은 “교사 1명 : 영아 2명”, 544명(31.6%)은 “교사 1명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만 1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에서는 933명(54.0%)은 “교사 1명 : 영아 3명”, 684명(39.6%)은 “교사 1명 : 영아 4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만 2세 유아의 경우”에는 836명(48.60%)은 “교사 1명 : 유아 5명”, 430명(25.0%)은 “교사 1명 : 유아 4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아 혼합연령차 철폐”에 대해서는 847명(49.2%)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526명(20.5%)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689명(39.9%)은 제한해야 한다, 617명(35.8%)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설립 유형별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1,261명(71.6%)이 동일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제반 비용의 부담자”에 대해서는 763명(44.1%)은 “국가전액부담”을 선택하였으며, 587명(34.1%)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을 선택하였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운영, 긴급 돌봄 등의 시스템이 체계화”에 대해서는 1,030명(59.8%)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326명(18.9%)은 반대의 입장이었다. “양육수당 지급 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에 대해 1,511명(87.7%)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국가가 영아의 보육과 돌봄을 책임져줄 필요”에 대해서는 1,265명(73.5%)이 그래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국가 차원의 보육과 돌봄보다는 부모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보육, 돌봄, 교육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1,374명(79.7%)이 그래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돌봄(교육) 및 긴급돌봄 지원”이 92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발달 지연 영아를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총 818건(21.0%)을 보였다.

설문결과 분석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에 대한 결과를 별도 분석하면서, 두 집단의 통계적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차이가 크거나 의미가 있는 것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 보육교사가 유치원 정교사 집단에 비해 영아교육과정은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개선 및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3.28, p<.001$). 교원 자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교원 자격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6.34, p<.001$).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특수교사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2.57, p<.01$). 보수교육(연수)의 정례화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보수교육(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1.96, p<.05$).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자격에 따른 보수교육(연수)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8.42, p<.001$). 영아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의 인식에서는 유치원 정교사 집단이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 보호를 위한 차량 운행 제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2.68, p<.01$). 그 외의 설문문항에서는 전체 설문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으며,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결과의 내용을 반영한 영아 교육과정과 영아 교육정책이 수립된다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영아 대상 교육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의 제언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한 과정과 연구 결론에 따른 연구의 제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기간에 따른 한계

본 연구의 수행은 연구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연구 수행과정에서 매우 긴박하게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연구 수행 결과의 질적 수준이 심도있게 달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비슷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연구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구대상에 따른 제한점과 한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들이 대부분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지리적 영역에 속해 있어 연구대상의 한계를 갖는다. FGI 참여자들은 전북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장전문가(어린이

집 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로 한정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설문조사 역시 총 응답자 1,732명 중 97.9%인 1,692명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특성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전국적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 연구가 수행되거나, 지역별 연구가 수행된 뒤 메타분석에 따른 총체적 연구 접근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 연구방법에 따른 제한점과 한계

본 연구는 문헌 연구, FGI 실시 및 분석,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의 세 가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과 연구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하여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역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영아 교육과정 및 영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의 의미와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시은, 최은희 (2024).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 충북지역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33-65.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제3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 교육부 (2019). “제4차 표준보육과정“.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3).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 교육부 (2023)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 교육부 (2024) 국민이 믿고 편안히 맡길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 김경철, 김윤지 (2023). 유보통합에 관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목소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3(17), 445-464.
- 김옥주, 장덕희 (2024). 구술생애사 기반의 세대통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FGI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1), 779-802.
- 김인숙 (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김인애 (2024). 경계선 유아에 대한 유아교사의 FGI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6(1), 5-27.
- 박정옥(2020). 우리나라 유보통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1991). “제1차 표준보육과정“.
- 보건복지부 (1998). “제2차 표준보육과정“.
- 서문희 (2013). 아이 사랑 플랜의 성과와 시사점. 육아정책포럼, 34, 6-13.
- 육아정책연구소 (2011).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 추진을 위한 단·중기 전략.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22). 교육·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윤정진, 임홍남 (2023).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창의인성교육의 현재에 대한 전문가 인식 연구 - FGI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연구, 25(4), 29-67.
- 이경화 (2024). 인간-너머 돌봄의 영유아교육과정을 향한 시론. 생태유아교육연구, 23(3), 169-194.
- 이석순 (2007).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비교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1(4), 183-208.
- 이승연, 유주연 (2014). 영아교사의 자기관찰 및 해석을 통한 영아 및 영아교육에 대한 신념과 실제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4(2), 207-234.
- 임부연 (2023). 유보통합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탐구: ‘돌봄의 인식론적 전회’ 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3(1), 102-128.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영아 통계 자료집.
- 지성화 (2024).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영유아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영아·유아·초등 교육과정 연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32(1), 171-187.
- 최민수 (2012).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인성교육 방안 모색. 幼兒教育·保育行政研究, 15(4), 143-168.
- 하응용, 김예성 (2020).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사업 참여자 대상 진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FGI 분석. 발달장애연구, 24(4), 53-75.
- 한국보육진흥원 (2022). 2022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영유아교육 - 공

- 간, 놀이, 디지털. 한국보육진흥원.
- Braun, V. and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Friedman, S., & Soltero, M. (2006). Following a child's lead: Emergent curriculum for infants and toddlers. *Young Children in the Web*, 1-5.
- Gandini, L., & Edwards, C. P. (Eds.). (2001). *Bambini: The Italian approach to infant/toddler car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Gopnik, A. (2009). *The philosophical baby: What children's minds tell us about truth, love, and the meaning of life*. New York, NY: Picador.
- Kovach, B., & Da Ros-Voseles, D. (2008). *Being with babies: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the infants in your care*. Beltsville, MD: Gryphon House, Inc.
- Lally, J. R., & Mangione, P. (2006). The uniqueness of infancy demands a responsive approach to care. *Young Children*, 61(4), 14-20.
- Lee, S. Y. (2005). *The development of infant-caregiver relationships in a child care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S.A.
- Martine Robbeets, Kyou-Dong Ahn, Seongha Rhee. (2022). 삼각검증법으로 밝힌 농경의 확산과 트랜스유라시아어의 확산. *언어학연구*, 64, 245-260.
- Morgan, D. L.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역). 서울: 군자출판사. (원저 1997년 출판).
- Morse, M., & Field,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Thousand Oaks. CA: Sage.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0).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A relationship-based approach*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관계중심 접근법*(이승연, 김은영, 강재희, 문혜련, 이성희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6 출판)

부록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설문지

<영아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설문지>

이 설문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의 요청에 의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특색 있는 영아교육과정 개발 및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결과는 추후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작성 시 모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되어 특정 개인의 정보가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명: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 교육과정 및 정책 연구
- 연구 요청 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연구 수행 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교수 권정현)
- 응답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 인구통계학적 자료

1. 귀하의 성별에 표시해 주세요.

- ① 남 ② 여 ③ 기타

2. 귀하의 연령(만)을 기입해 주세요.

_____세

3. 귀하가 해당 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 ① 교사(영유아 보육·교육분야, 원장 포함)
- ② 학부모(영유아 자녀 양육)
- ③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부모
- ④ 일반시민(초등학생 미만 자녀 없음)
- ⑤ 영유아 관련 기관 종사자
- ⑥ 기타

4. 귀하의 최종 학력에 표시해 주세요.

- ① 고등학교 중퇴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학 졸업
-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 ⑤ 석사 졸업
- ⑥ 박사 수료 이상

5.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인 경우 응답해 주세요) 귀하의 전공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유아교육
- ② 보육
- ③ 아동(복지)
- ④ 사회복지
- ⑤ 교육학
- ⑥ 보육교사 양성과정
- ⑦ 기타

6. 귀하의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을 표시해 주세요.

- ① 전라북도
- ② 전라남도
- ③ 충청남도
- ④ 충청북도
- ⑤ 경기도
- ⑥ 서울
- ⑦ 기타

7.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에 한해 응답해 주세요)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에 표시해 주세요.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직장어린이집
- ③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 ⑥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 ⑦ 국공립유치원
- ⑧ 사립유치원
- ⑨ 기타(영어학원, 공부방 등)

8.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인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귀하 가정의 가장 어린 자녀가 재원 하는 기관의 종류에 표시해주세요.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직장어린이집
- ③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
- ⑥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 ⑦ 국공립유치원
- ⑧ 사립유치원
- ⑨ 기타(영어학원, 공부방 등)

9.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에 한해 응답해 주세요) 귀하의 자격 유형 중 최종 또는 상급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 ① 1급 보육교사
- ② 2급 보육교사
- ③ 3급 보육교사
- ④ 어린이집 원장
- ⑤ 2급 유치원 정교사
- ⑥ 1급 유치원 정교사
- ⑦ 유치원 원감
- ⑧ 유치원 원장
- ⑨ 기타

10.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에 한해 응답해 주세요) 귀하는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업무를 몇 년이나 수행하였는지 년수를 기입해 주세요.

_____년

11.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에 한해 응답해 주세요) 귀하가 맡고 있는 영유아반의 연령을 기입해주세요.

_____세 반

12.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인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현재 귀하 가정의 가장 어린 영유아를 기준으로 영아의 연령(만)을 기입해주세요.

_____세

II. 영아교육과정의 필요성

13. 시대변화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영아교육과정은 필요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영아교육과정은 현재의 표준보육과정을 개선 및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영아교육과정은 새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영아와 유아 대상 교육과정과 정책은 통합되어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II. 영아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7.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된다면, 영아교육과정은 영아의 개월 수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보다는 개월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8. 영아의 개인별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발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활용에 대한 교사 대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9. 영아의 발달 정도를 측정한 후 유연성 있는 반 편성 및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영아교육과정에 디지털 학습 공간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1.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영아교육과정에서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인지발달 ② 언어발달 ③ 신체발달 ④ 정서발달 ⑤ 사회성발달
⑥ 예술성발달 ⑦ 기타

22. 다음에 제시된 영아교육과정 6대 영역 중 0~2세 영아의 경우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기본 생활 ② 신체운동, 건강 ③ 의사소통 ④ 사회관계 ⑤ 자연 탐구
⑥ 예술경험 ⑦ 기타

23.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에게 강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사회성을 높이는 경험
② 다양한 체험 활동
③ 자연 친화적인 경험
④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활동
⑤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
⑥ 감정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
⑦ 자아를 인식, 확립할 수 있는 경험
⑧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⑨ 긍정적인 감정(행복, 즐거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
⑩ 안전 훈련
⑪ 기타

24.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영아교육과정 중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재상에 가

장 어울리는 표현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복 선택 가능)

- ① 건강한
- ② 자주적인
- ③ 창의적인
- ④ 감성이 풍부한
- ⑤ 예의바른
- ⑥ 정직한
- ⑦ 지혜로운
- ⑧ 긍정적인
- ⑨ 따뜻한
- ⑩ 사회성이 있는
- ⑪ 자유로운
- ⑫ 행복한
- ⑬ 기타

IV. 영아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자격 및 자질

25.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교사 교육 시 영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6. 영아교육과정이 새롭게 수립된다면, 교사 양성 과정은 이론보다는 실습 및 체험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영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영아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을 위해 현재의 영아전담 보육교사와 유아전담 유치원 교사 자격 과정은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 및 일원화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9.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으로 선발 되지 않았으나 발달이 늦거나 개인 특성이 강한 학생의 있는 경우 어떤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중복선택 가능)

- ① 보조인력지원
② 영아에 대한 검사 및 진단 의무화
③ 일부 기관에 해당 학급 편성
④ 특수기관의 설립
⑤ 현행 유지

31. 영아교육과정이 수립되어 운영된다면, 양질의 보수교육(연수)이 정례화되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2. 만약 영유아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현재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학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3. 만약 영유아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교사 자격을 위한 보수교육(연수)과정은 어떤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지역교육청
② 지역대학
③ 별도 기관 신설
④ 사설 기관 및 학원
⑤ 원격연수기관

34. 만약 영유아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과정은 어떤 형태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원격교육형태

- ② 대학 학위(학사·석사·박사)연계 과정
- ③ 자격연수과정
- ④ 기타()

35. 만약 영유아교사 자격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변화할 영유아교사 자격의 보수교육(연수)의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1개월 집중과정
- ② 6개월 학기과정
- ③ 1년 학년과정
- ④ 2-3년의 학위 연계과정
- ⑤ 4년 이상의 과정
- ⑥ 기타()

V. 영아교육과정 운영의 현실화

36.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교사 1인당 배정하는 영아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37.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0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사:영아)

- ① 교사 1명 : 영아 4명
- ② 교사 1명 : 영아 3명
- ③ 교사1과 보조교사 1명 : 영아 3명
- ④ 교사 1명 : 영아 2명
- ⑤ 기타()

38.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1세 영아의 경우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사:영아)

- ① 교사 1명 : 영아 6명
- ② 교사 1명 : 영아 5명
- ③ 교사 1명 : 영아 4명
- ④ 교사 1명 : 영아 3명

⑤ 기타(_____)

39. 영아교육과정이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만 2세 유아의 경우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교사:유아)

- ① 교사 1명 : 유아 7명
- ② 교사 1명 : 유아 6명
- ③ 교사 1명 : 유아 5명
- ④ 교사 1명 : 유아 4명
- ⑤ 기타(_____)

VI. 영아교육 정책

40.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혼합연령반은 영아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1.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영아의 안전과 소규모 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2.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등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재정 지원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43. 영아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영아교육과정 운영 시 제반 비용은 다음 중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 ① 국가 전액 부담
- ② 학부모 전액 부담
- ③ 소득에 따라 국가와 학부모가 나눠서 차등 부담
- ④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국가가 일부 부담
- ⑤ 기타
- ⑥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경우에 따라 학부모가 일부 부담

